

석사학위논문

#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 자원화방안 연구

-한라산국립공원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강정효

2008 년 8 월

# 濟州世界自然遺産의 生態觀光 資源化方案 研究

-漢拏山國立公園 專門家 意見調査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崔 容 福

姜 定 孝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 年 8 月

姜定孝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 年 8 月

# A Study on Practical Method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for Eco-tourism

- Focusing on the experts' opinion of Mt. Halla -

Jung-Hyo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Development.

2008 . 8 .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분석의 방법	5
4. 연구의 한계	5
II. 이론적 고찰	7
1. 세계자연유산 개념	7
1) 세계유산	7
2) 세계자연유산	9
2. 생태관광의 개념	10
1) 생태관광의 개념	10
2) 생태관광의 유사개념	12
3) 생태관광에 대한 국제적 전략	15
3. 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자원화 사례연구	19
1) 일본	19
2) 중국	23
3) 베트남	24
4) 벨리즈	25
5) 오만	27
6) 호주	27
III. 제주세계자연유산 현황분석	29



1. 세계자연유산 지정현황-----	29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38
3. 제주세계자연유산 현황분석-----	40
1) 등재과정-----	40
2) 개요-----	45
3) 관리 현황-----	52
4. 한라산국립공원 현황분석-----	58
1) 개요-----	58
2)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지정-----	61
3) 관광자원-----	63
4) 관광자원개발현황-----	65
5)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사례-----	67
6) 한라산 관광자원화의 비판적 접근-----	69
IV.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80
1. 조사 설계-----	80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80
2) 설문지 구성-----	81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84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85
1) 관리의 목표-----	85
2) 보호관리 방안-----	85
3)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86
4) 홍보방안-----	89
5)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91
6) 전문가 분야별 의식 차이-----	92
V. 제주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97

1.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97
2. 생태관광 기반시설-----	98
3. 지역사회 연계방안-----	99
4. 홍보방안-----	101
5. 인증프로그램 개발방안-----	102
 VI. 결론-----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부록-----	113



## 표 목 차

<표3-1> 대륙별 세계유산 보유현황-----	29
<표3-2> 국가별 세계자연유산목록-----	30
<표3-3> 국가별 세계복합유산 목록-----	35
<표3-4>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36
<표3-5>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	42
<표3-6> 연도별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추이-----	56
<표3-7> 2006~2008년 1월~2월 방문객 현황-----	56
<표3-8> 2008년 유산지구별 방문객 유치목표-----	56
<표3-9> 성산일출봉, 만장굴 외국인 관람객 추이-----	57
<표3-10>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	62
<표4-1> 설문 응답 전문가 그룹별 분포-----	80
<표4-2> 설문지의 구성-----	84
<표4-3>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목표-----	85
<표4-4> 보호관리방안-----	86
<표4-5> 생태관광 상품 개발방안-----	87
<표4-6> 생태관광 상품 개발 최적지-----	87
<표4-7> 생태관광 우선 포함 순위-----	88
<표4-8>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	89
<표4-9> 홍보방안-----	89
<표4-10> 홍보방법 우선순위-----	90
<표4-11> 도서,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	90
<표4-12>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91
<표4-13>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 기관-----	91
<표4-14>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주체-----	92
<표4-15> 그룹별 생태관광자원화 필요성 교차분석-----	93
<표4-16> 그룹별 생태관광 최적지 교차분석-----	94

<표4-17> 그룹별 생태관광 우선포함순위 교차분석	94
<표4-18> 그룹별 지역주민 참여연계방안 교차분석	95
<표4-19> 그룹별 홍보도서 기념품 개발주체 교차분석	95
<표4-20> 그룹별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기관 교차분석	96
<표4-21> 그룹별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주체 교차분석	96

## 그림 목차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2-1> 생태관광의 개념	12
<그림3-1> 제주자연유산 현지실사	42
<그림3-2> 제주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44
<그림3-3> 제주자연유산 지도	46
<그림3-4> 제주자연유산 한라산 백록담	47
<그림3-5> 제주세계자연유산 만장굴 내부	48
<그림3-6> 제주세계자연유산 용천굴 내부	49
<그림3-7> 제주세계자연유산 당처물동굴 내부	50
<그림3-8> 제주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응회구	51
<그림3-9> 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물들	53
<그림3-10> 제주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	54
<그림3-11>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만수위	59
<그림3-12>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대피소와 탐방객	61
<그림3-13>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62
<그림3-14> 하늘에서 본 한라산	63
<그림3-15> 한라산 어리목코스의 탐방객들	66
<그림3-16> 한라산국립공원의 탐방객들	70
<그림3-17> 한라산 훼손지 식생 복구	72

<그림3-18>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73

<그림3-19>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인 서귀포 범섬-----78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2007년 6월 27일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이 전 세계인의 인정을 받았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sup>1)</sup> 총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신청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세계자연유산 등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선물, 또는 과거로부터 전해지고 현재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정의되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가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질학적, 지형학적, 자연지리학적 특징을 포함한 지구 역사상의 중요성’이 인정됐다는 말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한 유산이 아닌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문화재로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의미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우리나라 차원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재로 그 위상을 높이게 된 만큼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호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칫 보전 노력을 소홀히 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따로 분류하는 등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살 수도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9).

결국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단순히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나 일반인들에 의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국민 누구나 한마음으로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관리해야 하는 문화적 사고와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이혜은, 2005: 31).

여기서 보전한다 함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태계를 선용하여 그 가

---

1)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해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됐는데 세계유산의 선정 및 세계유산의 보존조치를 심사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작성, 필요시 문화재 연구 조사 및 세계유산기금의 사용을 결정한다.

치를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관광매력을 증진하는, 즉 관광과 환경이 조화된 어우러짐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과 환경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과학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인적자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지표 개발', '생태관광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김성진, 2002: 60-68).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마련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 2. 연구의 목적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만장굴, 당치물동굴, 용천동굴, 김녕굴, 벵뒤굴), 성산일출봉 응회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만장굴, 성산일출봉 응회구 등으로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어리목코스과 영실코스, 성판악코스, 관음사코스, 어승생악코스 등 5개 등산로가 개방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등재이후인 2007년을 기준으로 3개 유산지구의 방문객 총계를 살펴보면 2006년 225만명에서 2007년도에는 239만명이 다녀가 5.7%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2)</sup>

하지만 제주의 자연이 지질학적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이들에게 단순히 자연의 우수성만을 보여주는 관광위락적 측면의 관광형태는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은 보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활용할 대상이 바로 잘 보전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생태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관광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한국관광연구원 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민 여행행태 조사' 결과 1999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보도자료, 2008.3.20일자 참조



년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꼴(11.7%)로 철새도래지, 갯벌, 습지 등 생태관광지를 방문하였다고 응답했다. 이 점유율이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국민국내관광총량은 2005년 5억 명, 2010년 5억 8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 중 생태관광총량은 2005년 5900만 명, 2010년 6800만 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관광연구원, 2001). 이는 생태관광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그 중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전망은 무척이나 밝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제주의 자연이 세계인의 문화재임을 감안,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과 생태관광의 개념, 현황, 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 자원화 사례 등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를 본 연구의 기초로 삼는다.

둘째, 제주세계자연유산 지구인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관리 및 관광현황, 생태관광의 적용사례, 문제점 등과 함께 자연유산 등재 전후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목표, 보호 관리 방안,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홍보방안, 인증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에 대해 조사 분석,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세계자연유산과 생태관광의 개념, 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자원화 사례이고 둘째,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의 현황, 셋째,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목표, 보호 관리 방안,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홍보방안, 인증프로그램 개발방안 조사 분석, 넷째,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세계자연유산 지구인 한라산국립공원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점인 2007년 6월 27일부터이고 설문지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 단계로 세계자연유산과 생태관광의 개념, 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 자원화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둘째 세계자연유산과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현황 및 자연유산 등재 과정의 제 문제,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및 관광현황, 생태관광의 적용사례, 문제점 등을 고찰했다.

셋째,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관련 학자와 담당 공무원, 관광 및 환경단체, 자연생태해설사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 구성은 관리의 목표, 보호관리 방안,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홍보방안,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으로 나뉘어 28문항에 걸쳐 조사했다.

넷째,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방안, 지역사회 연계방안, 홍보방안, 인증 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으로 나뉘어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3) 분석의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코딩 과정을 거쳐 SPSSWIN 12.0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각 항목 별로 '필요하다'를 5점, '어느 정도 필요하다'를 4점, '보통'을 3점, '약간 필요치 않다'를 2점, '필요치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 가운데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선택된 3가지 항목을 측정할 후 3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계 점수를 산출하였다.

##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대부분 경관 위주의 소개에 그치는 등 선행연구가 극히 미약해 깊이 있는 문헌연구 조사가 미흡했다.

둘째, 생태관광 개발에 앞서 선결조건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구체적인 상품 개발방안 제안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셋째,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경우 개발과 보전측면에서 수용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자연적 환경과 주변의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반객의 행태와 자연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었기에 기인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표본 추출에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 II. 이론적 고찰

### 1. 세계자연유산 개념

#### 1) 세계유산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유산(Heritage)에 대한 정의를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선물, 또는 과거로부터 전해지고 현재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의미이며,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니고 있다(이혜은, 2005).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11월에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의 목적으로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함이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이 중 문화유산은 유적, 건축물, 장소로 구분되는데 먼저 유적은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을, 건축물은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장소는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

군으로 이루어진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그리고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을 의미한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의미한다.

한편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으로는 이러한 세계유산 외에 세계무형유산으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나 ‘세계기록유산’이 있는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 2년마다 지정해 오고 있는 전 세계의 탁월한 가치를 지니며 인류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구전 민 무형유산을 말한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 심의, 추천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유산으로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세계기록유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나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 관리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록기준으로는 ①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②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③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④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⑤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⑥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등의 기준에서 ①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②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등록효과로는 먼저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sup>3)</sup>(World Heritage Fund)으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협약국이 세계유산 지역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보고해야 하는 등 등록된 유산의 보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나 다른 기구들이 위협에 처한 유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합 관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는 매년 세계유산의 지정 이외에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따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에서 자연적 환경의 변화나 인위적 이유로 보존 위기에 처한 유산만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각 정부와 협의하여 유산 훼손의 원인 규명 및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영구히 삭제된다.

## 2) 세계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은 ①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②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③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④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

3) 유엔에서는 세계 유산 생물다양성 지역(World Heritage Biodiversity sites)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유네스코와 국제환경보호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야생동물보호회(the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찰스 다윈 기금(the Charles Darwin Foundation), AVEDA사(AVEDA Corporation)와 월트 디즈니 동물보호기금(the Walt Disney Conservation Fund) 등의 다른 핵심적인 기술적, 재정적인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의 보호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유엔재단의 지원은 에콰도르 해안의 갈라파고스군도(Galapagos Islands)에서부터 캄보디아의 카다몬 산맥(Cardamon Mountains)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50개 이상의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세계 자연유산지역(Natural World Heritage sites)에 혜택을 주고 있다.

식지 등을 말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절차로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가 등록신청을 위한 예비단계로 잠정 목록을 제출하고 자체조사를 통한 학술적 자료축적과 함께 보호관리 계획 수립 등을 선행한 후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sup>4</sup>)에 정식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센터가 이를 접수한 후 신청유산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sup>5</sup>)에 의뢰함으로써 시작된다.

IUCN은 먼저 해당유산의 세계자연보호구역모니터링센터(WCMC,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수집하고 소수의 외부전문가의 서면평가를 거친 후 현장실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청서의 진위와 유산의 보호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게 한 후 기술보고서를 제출받아 당해 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한 패널을 개최하고 그 심의 결과를 세계유산센터로 보내게 된다.

세계유산센터에서는 7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를 구성하여 IUCN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등재', '보완', '보류', '등재불가'로 구분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결과는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김찬수, 2006: 8).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도록 결정하거나(등재), 일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보완), 심층 정보의 추가 확보를 전제로 하여 결정을 유보하거나(보류), 또는 등재를 거부(등재불가)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등재불가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유산은 다시 세계유산으로 신청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한라일보, 2007: 22).

## 2. 생태관광의 개념

### 1) 생태관광의 개념

- 
- 4) 세계유산센터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4조)에 근거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내에 함께 있다. 유네스코 문화활동의 하나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일상적 관리를 담당한다.
  - 5)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1990년 1948년에 설립됐다. 자원과 자연의 관리 및 동식물 멸종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아 세계자연유산을 신청한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해 실사와 평가를 거쳐 등재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관광부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후에도 관광산업이 극적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개발과 자연보호 사이에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활동과 물계획적인 관광개발로 인해 취약한 관광구성요소들이 훼손될 경우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해당 생태계를 복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은 정부, 기업, 단체 등 관광개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재차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여건의 변화는 생태관광(Ecotourism)과 생태관광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자연중심관광(Nature oriented tourism)의 필요성이 요사이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광의, 변재진, 199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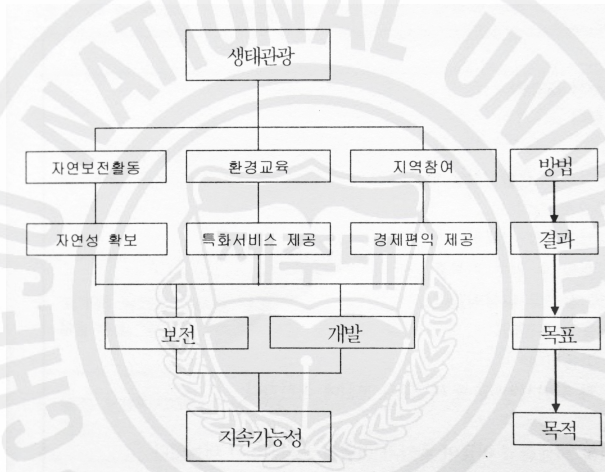
생태관광은 1965년 헤츠(Hetzer)가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에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데서 출발하였고 1983년 Hector Ceballos-Lascurain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라고 명명한 이래 널리 사용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1).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관광업계가 생태관광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로서 생태관광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구체적 이론정립과 실천 강령을 마련한 것은 미주여행업협회(ASTA)로 1990년 6월 ASTA 환경위원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관광·환경회의에서 'Ecotouris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환경과 조화하는 여행, 즉 자연과 환경을 파괴함이 없이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했다. 1993년 열린 제1회 동아시아 국립공원 보호지역회의에서는 생태관광을 "환경을 배려한 여행의 추진 또는 여행자가 생태계나 지방문화에 대한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연 및 문화지역을 방문하고, 이해하며,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탐방자들이 그들의 생태계 혹은 지역문화에 손상 혹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적 문화적 지구를 탐방, 이해, 감상,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시설설비와 환경적으로 민감한 관광의 실천"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은 생태관광을 지역에서의 관광과 동시에 자연자원의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호주보전협회(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는 "자연 및 문화환경의 교육과 해설을 포함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유지되는 자연을 기초로 한 관광"이라 정의했다(최용은, 1997: 5-6).

이처럼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첫째 자연지향적, 경험적, 교육적 관광활동이며, 둘째, 양보다는 질을,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를 중시한



다. 셋째, 책임질 수 있는 관광을 통하여 환경적 인식을 갖게 하며 자연보전에도 효과가 크다. 넷째, 관광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주민에게 복지와 고용과 재정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최재우, 2001: 59-73).

즉 생태관광은 자연에 대한 관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보전적, 지역경제적, 문화 및 역사적, 교육적인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생태관광지 주민의 수익을 고려하고, 단순향락과 휴식만의 관광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교육적인 효과도 생각하는 관광이라는 면에서 기존의 관광개념에서 매우 진보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1〉 생태관광의 개념

자료: 김성일 (2002), "생태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세계적 동향", 「2002년 세계생태관광의 해 기념포럼"한국의 생태관광 발전전략 모색(2002.4.17-19) 발표논문집」, p.3 재인용

## 2) 생태관광의 유사개념

### (1)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대안관광은 관광의 여러 형태인 보전관광, 생태관광, 연성관광, 책임 있는 관광, 통제된 관광, 자연관광, 마을관광, 녹색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관광형태들은 전통적 대중관광자들이 행하던 관광과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임주환, 1993). 전통적 대중관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규모 환경 지향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안관광은 현대 소비문화의 반대적인 개념과 제3세계 관광개발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안관광의 특징은 지역주민들과의 간단한 만남을 하며, 체제일수가 길고 사업적이지 않는 학습을 선택하고, 교육 홍보 및 다른 수단을 통하여 목적지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 (2)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모험관광이란 생태관광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경성생태관광의 한 형태이다. 특히 모험관광의 두드러진 특징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명승지 관광이나 휴양목적 관광에서 탈피하여 생경한 자연에 대한 도전이나 희귀 동식물 탐사 등으로 관광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파생된 용어이다(이장춘, 1998: 269).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정글탐험, 동굴탐험, 뗏목탐험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모험관광과 인도네시아의 코끼리 사파리, 파키스탄의 낙타나 지프를 이용한 사막유람과 카라코람 산맥의 트레킹, 네팔의 히말라야 등반관광 등을 들 수 있다(이광희·변재진, 1992: 50).

#### (3) 농촌관광(Farm Tourism)

농촌관광(Farm Tourism)이란 개념은 도시공간을 벗어나 농촌지역에서 관광활동을 즐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관광은 농촌의 민가 혹은 소규모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현상은 뉴질랜드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장춘, 1998: 269).

농촌관광은 관광숙박시설형(Tourist Accommodation), 낚시나 승마와 같은 특별한 활동 목적을 가진 자원의존형(Resource based activity), 1일 방문형(day visito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은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리조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관광객으로서, 숙박시설의 등급을 따지지 않고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개방형(Open air types) 관광객이다.

장소적인 매력 이외에 직접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는 경험, 농촌 지역민과의 교제, 농촌의 식생활, 가족들과의 접촉 또한 농촌관광의 매력이다.

#### (4) 자연관광(Nature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또는 자연지향관광(Nature-oriented Tourism)이란 용어는 교육, 레크레이션, 모험이 조합된 관광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루카스(Lucas)는 자연관광을

“자연지역을 즐기고 자연을 관찰하는데 의존하는 관광”이라 정의하고 있다(Susan E. Place, 1991: 189).

자연관광의 특징은 첫째, 낮은 사회적 포용력(Social carrying capacity)과 환경수용력(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둘째, 환경적 사회적 제반에 반해 경제적 잠재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종종 ‘소수의 고부가가치관광(low volume high value Tourism)’의 한 예로서 언급된다. 셋째, 정통적 관광형태와 다른 독특한 조건들, 즉 비교적 나쁜 환경조건(원시적 숙박시설, 식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다. 넷째, 육체적 도전이나 교육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을 추구하게 되며, 특히 강한 교육적 활동을 중요시한다(C.Eenise Ingram and P.B. Durst, 1998: 39). 마지막으로 자연관광에서 원시인과 독특성이 강조되는 핵심부분의 관광형태가 생태관광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유기적인 것이다(이화진, 2001: 32).

#### (5) 녹색관광(Green Tourism)

녹색관광은 A. Jones(1987)에 의해 제안된 관광개념으로, 조건적 관광개발을 통해 농촌의 생활구조개선을 이루고 새로운 관광활동과 체험을 제공하는 기회로서 도시민에게 농촌을 알리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의 형태이다(A. Jones, 1987: 355). 다르게 표현하면 녹색관광이란 ‘푸르름 가득한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1992: 84).

녹색관광의 형태로는 농.임.어업 등을 체험하는 땀 흘리는 여행, 지방과의 교류를 바라는 여행, 가족동반의 성격이 강한 여행, 취미를 진화시키는 여행, 사시사철의 음식을 즐기는 여행,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여행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관광에 포함되는 관광활동으로 생태보전 연구, 루릴 사이클링(rural cycling), 시골지역 요리 혹은 성에서 포도주 만들기, 전원 스포츠 및 공예교습, 전원 및 농촌 생활발견에 기초한 여행 등이 있다.

녹색관광은 천혜적인 토지관리와 생태적 온전함의 측면에서 미래 관광의 중요한 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도 기여할 수 것이다.

#### (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보전관광이라고도 표현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주어진 문화적, 자연적 자원의 아름다움과 특

정을 기초로 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수용력에 따르는 관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의 수용상태가 강조된다(D Nash and R. Butler, 1990: 263).

Robert D. Zimmer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궁극적 이념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간에 환경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했다.<sup>6)</sup> 1990년 캐나다에서 열린 지구관광 행동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이념을 다음 4가지로 압축시키고 있다(박종구, 1994: 13-14).

첫째는 환경을 보호하고 고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및 미래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는 만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경제적 이용과 생태계의 보존간에 조화를 추구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생태관광에 대한 국제적 전략

#### (1) 미주여행업협회(ASTA)<sup>7)</sup>

세계최대여행업계기구인 미주여행업협회(ASTA :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는 1931년 설립돼 세계 140여개국 2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미주지역 관광사들이 중심이 되어 미주지역 관광발전과 관광협력사업, 교육, 시장개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로 관광과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세계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ASTA가 정한 환경 자연보호 요령의 내용이다.

·관광을 할 때는 관광지에서 발자국만 남기고, 사진촬영과 추억만 가지고 갈 것.

·자연환경의 취약성을 인식한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것.

·유익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광지의 관습, 풍속, 문화를 이해하여야 하며, 관광 중에는 현지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가질 것.

·관광지의 토착문화(종교, 전통, 공예, 음식, 서비스)를 존중하고, 사진을 촬영할 때는 특히 현지인들의 사생활과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6) Robert D. Zimmer, “Sustainable Development : A New Paradigm for global tourism”, 1991

7) 제주도청 ASTA총회준비기획단, 2007년 3월 27일 보도자료 참조



·관광지에 오물을 버리지 말 것이며, 돌아갈 때는 봉지에 담아가야 한다. 처음 올 때처럼 떠날 때는 깨끗이 청소하고 떠날 것.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endangered)로 제조된 상품(상아, 거북껍질, 새털, 동물가죽 등)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관세청에서 수입금지 품목을 알리는 안내서 'Know Before You Go'를 읽고 관광할 것.

·지정된 관광루트(designed trails)를 항상 이용할 것.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나가고 동물에 손을 대지 말 것.

·자연보전적 사업(conservation-oriented program)과 관련기구를 이해하고 지원할 것, 전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자연보전에 협력할 것.

·관광사, 관광휴양사업자에게 ASTA가 정한 환경가이드라인(environmental guideline), 또는 다른 규정(사막, 산악지형과 같은 특수지역 보호를 위한 건의 포함)을 채택, 실천하도록 요청할 것.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관광할 것, 주차를 할 때는 운전자들에게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

## (2)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sup>8)</sup>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여행협회인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는 1951년 설립된 민간국제관광기구로,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으며 전세계 90여개국 관광담당 정부부처 및 기관, 55개 항공사 및 크루즈사, 77개국 1261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기존 마케팅, 자원개발, 교육업무, 조사업무 이외에 최근 지속가능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별도조직인 환경위원회를 두어 환경보전과 이와 관련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sup>9)</sup>

PATA는 환경보전과 관광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강령, 즉 PATA Cod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Tourism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국들이 이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체와 관광객은 자연을 이용함에 있어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수 있는 사업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에 공개한 자연관광 수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제주도청 PATA총회준비기획단, 2004년 4월 20일 보도자료 참조

9) 2004년 4월 2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차 연차총회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의 당면과제, 여행관광기구의 위기에서 명성 관리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다뤘다.

·관광업자들은 자연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보전적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자연과 문화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전적 관광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자연관광상품의 개발과 사업 참여를 촉구하고,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배려한다.

·관광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 보호에 힘쓴다.

·자연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의 기본정신의 이해와 실행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와 방문자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한다.

·관광사의 간부, 안내원, 고객,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관광'에 대한 교육을 책임진다.

·PATA의 윤리강령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 회원국의 문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상행위와 각국의 윤리강령을 존중한다.

·PATA는 생태관광 정책수립, 자연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자원의 효과적 관리, 토속적 문화이해 촉진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지역사회, 사회단체에 자문, 지원을 한다.

·자연보전과 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예산배정을 해 줄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소비자(관광객), 유관업체, 단체를 위해 관광객이 찾는 지역을 생태학적 접근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PATA는 생태관광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세계관광기구(WTO)

세계관광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향제시, 교육훈련, 기본통계 작성과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정부간 기구인 세계관광기구(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1986년 WTO 제4차 총회(로마)에서 채택한 결의 100호에 따라 환경과 관광에 대한 연구보고가 제출되었다. WTO는 자연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자연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고 자연의 공급능력과 인간의 여가활동 수요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할 자연공간을 다음의 8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성현지, 1999: 19-20).

①학술적 보존지구, 엄격히 관리되는 자연보존지구(scientific reserve and strict nature reserve)

②국립공원(nation park)

③자연공원(natural monument and natural landmark)

④자연보전지구 및 야생동식물보전지구(managed nature reserve and wildlife sanctuary)

⑤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연경승지구(protected landscape)

⑥자연자원보존지구(resources reserve)

⑦자연적으로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 문화인류학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natural biotic area and anthropological area)

⑧다용도 자연자원관리지구, 특정자원관리지구(multipurpose management area and managed resource area)

#### (4) 유엔환경계획(UNEP)

UN이 환경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MAB : Man And Biosphere)에서 비롯된다. MAB는 1971년 유네스코가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 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생물권에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더 이상의 생물권 파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간 사업이다. MAB의 목적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태계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방안의 제공, 관련 전문가 훈련 및 연구사업 전개 등이며 생물권 보존지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설립된 동북아시아의 북한, 중국, 몽골, 일본 등 5개 회원국이 회원으로 하는 EABRN(Easr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에 가입하여 공동연구, 세미나 등 활발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sup>10)</sup>

#### (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와 프랑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자연보존회의에서 국제기구 설립을 결의해 자연보호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Nature)을 설립한 후 195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으로 개칭했다.

유엔은 세계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구역(protected areas)이 각 국가별, 국제기구 별로 상이하게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과 개념 등 기준을 통일시키

10) 2004년 3월 29-31일 제주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지구환경장관 포럼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제주 선언(Jeju Initiative)'을 채택했는데 국제사회가 당면한 물과 위생·빈곤 문제 해결, 통합수자원관리계획 등에 있어 새천년선언(MGD·2000)과 세계환경정상회의의 이행계획(WSSD·2002)의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간 정책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자 1997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립한 보호구역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7개 범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 범주 1-a(Category I a) - 엄정 자연보호구역
- 범주 1-b(Category I b) - 황야지 보호구역
- 범주 2(Category II) - 국립공원
- 범주 3(Category III) - 천연기념물
- 범주 4(Category IV) -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
- 범주 5(Category V) - 육지 및 해양 경관보호구역
- 범주 6(Category VI) - 관리되고 있는 자연보호구역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0개소가 경관보호구역에 속하며 북한은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장수산, 백연, 장진호, 소흥호, 몽금포 등 9개소가 국립공원에 속한다.

### 3. 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자원화 사례연구

#### 1) 일본

일본에는 모두 3건의 세계자연유산이 있다. 1993년에 등재된 야쿠시마(Yakushima)와 시라카미 산치(Shirakami-Sanchi), 2005년에 등재된 시레토코(Shiretoko)가 그것이다. 야쿠 섬에 위치한 야쿠시마는 1900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온난지대에 서식하는 고대 숲지대도 포함하고 있고 시라카미 산치는 혼슈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냉대산림이 펼쳐져 있는데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지막 처녀지이다. 홋카이도 북단에 위치한 시레토코는 해역과 육지상의 생태계적 상호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야쿠시마 :일본 큐슈(九州)지방의 따뜻한 기후와 홋카이도(北海道)의 추운 기후가 공존하고 있는 야쿠시마(屋久島)는 섬의 상당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섬 전체 면적은 500km<sup>2</sup> 이고 이 중 세계자연유산등록구역은 국립공원면적의 80%, 섬 전체면적의 20%인 약 1만 747ha가 지정되어 있다. 현재 야쿠시마의 인구는 약 1만3500명 정도이며, 연간 방문객 수는 20~25만명 정도, 1일 방문객 수는 약 1,000명 정도로 방문객들의 체류기간은 평균 2~3일



정도 머물고 있다.

아열대에서 한대기후까지 남북 2500km에 이르는 일본 열도 전체의 자연을 이 섬 한군데서 볼 수 있는데 야쿠시마의 숲에는 수령이 수천년 되는 나무들이 있어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야쿠시마에는 삼나무(일본말로 스기, 杉)가 유명한데, 야쿠스기라고 부르는 삼나무는 수령 1000년 이상 된 것을 말한다. 가장 오래된 조몬스기(縄文杉)는 7200년이나 되었다고 전한다.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기본이념은 야쿠시마의 뛰어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1992년 11월 작성된 '환경문화총합구상'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야쿠시마환경문화총합구상을 추진하는 중심 조직으로서 1993년 가고시마현 가미야쿠초, 야쿠초의 출연으로 야쿠시마환경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야쿠시마 환경문화총 구상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은 ①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이 있는 야쿠시마, ②숲의 문화와 자연과 함께 살아온 생활의 지혜가 남아 있는 '환경문화의 섬' 야쿠시마, ③일본문화의 근본인 '공생(共生)과 순환'의 원점으로서의 야쿠시마를 만들어 가는 것 등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의 하나가 생태관광이다(서재철, 2007: 79).

야쿠시마 환경문화총 구상은 야쿠시마의 자연을 소중히 하고, 그 가치를 재검토하는 것을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섬만들기를 목표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야쿠시마 전체를 환경학습과 연구의 섬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즉, 야쿠시마가 뛰어난 자연과 그 자연환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환경문화-를 기초로 야쿠시마의 자연 보호와 생활의 풍부함을 아울러 실현하려는 것이다.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기본이념은 '공생과 순환'의 원칙을 교감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공존해온 섬의 생활이나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쿠시마환경문화재단에서는 섬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쿠시마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규칙인 '야쿠시마 컨트리코드(country code)'를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쿠시마 컨트리코드(Country Code)〉

- 지역주민의 문화나 생활을 존중한다.
-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간다.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 동식물을 함치지 않는다.

- 동식물을 소중히 한다.
- 캠프는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
- 숲속에서는 모닥불을 피우지 않는다.
- 등산할 때는 등산신고를 한다.
- 정해진 길로 간다.
- 당일치기의 등산이라도 충분한 장비를 갖춘다.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태관광의 추진조직인 환경문화재단의 설립, 자연환경 학습시스템의 구축, 순환형 지역사회 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문화재단은 야쿠시마 환경문화추진구상을 추진하는 중심 조직으로서, 1993년 가고시마현 가미야쿠초, 야쿠초의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은 야쿠시마의 뛰어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지원사업으로 산악순찰 및 등산로등 청소활동 실시 및 지원, 야쿠시마 컨트리코드(country code) 보급 촉진, 야쿠시마환경보전 심벌마크의 보급, 자연보호사업으로 바다거북 보호사업,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야쿠시마산 묘목 증식사업, 7000년 숲 가꾸기 사업을, 환경학습 사업으로 야쿠시마환경문화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환경 학습시스템으로는 환경문화촌센터, 환경문화연수센터, 박물관, 환경학습네트워크 등이 있고 연구시설로는 야생생물보호센터, 연구자 네트워크, 환경문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특히 환경문화연수센터에서는 야쿠시마의 자연과 생태에 관심을 갖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환경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2박3일 일정의 자연체험 세미나와 1일 연수, 1시간 정도로 야쿠시마에 관한 기초적인 환경학습의 장인 단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학습 프로그램은 창작활동(야쿠삼나무 공예), 환경보전활동(등산로 청소), 실내연수(강의), 야외활동(자연 게임), 자연관찰(야쿠삼나무 랜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타 환경학습 장소로는 야쿠시마 세계유산센터, 역사민속자료관, 야쿠삼나무 자연관, 야쿠삼나무랜드 등이 있다.

그리고 순환형 지역사회 시스템의 구축방안으로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수칙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권장하는 한편 입산시에 물건 지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연조건 또한 관광 안내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밀림 형태인 점도 자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관광안내 사업자들 또한 야쿠시마야외활동센터(YNAC;Yakushima Nature Activity Center)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모임을 조직하

여 생태관광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생태관광시 1회에 10명을 넘지 않는 인원을 인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tourlab.com>).

시라카미 산지 : 시라카미 산지는 아오모리 현과 아키타 현에 걸쳐있는 13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악지대의 총칭으로, 1993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류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도밤나무 원시림이 있다. 너도밤나무 숲 속에는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라카미 산지 중에서도 우수한 경승지로 알려진 안몬노 폭포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나무가 울창한 숲, 맑은 강어울 등 자연 속을 걷는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북쪽에는 울창한 너도밤나무 원생림으로 둘러싸인 산기슭의 작은 언덕이 있다. 이곳은 크고 작은 33개에 이르는 호수와 늪 군으로, 그 중에서도 아오이케 호는 코발트블루의 물을 담은 신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찾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7만1000헥타르(ha)에 이르는 세계자연유산 지역 중 국립공원의 면적은 3만8600헥타르(ha)이고, 그 중의 80%이상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레토코를 찾는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탐방로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시라카미 산지 비지터센터와 시라카미 산지 세계유산센터 등의 시설에서는 전시코너와 영상체험 홀이 있어, 시라카미 산지의 자연에 대해 소개되고 있다<sup>11)</sup>.

시레토코 자연센터는 1988년 샤리 마을을 주축으로 한 지역민들이 설립한 시레토코재단(22명)이 환경성과 샤리 읍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와 자연해설, 생태조사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시레토코재단은 샤리 읍사무소와 함께 시레토코 반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주역이기도 하다. 처음 시레토코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은 1993년 읍사무소 환경보전과에서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어 1997년 시레토코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1인 100평방미터( $m^2$ ) 갖기 운동'과 '1인 8000엔 기부운동'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본래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의 터전이었는데 1868년 메이지 정부가 홋카이도를 식민지화 한 이후 개척과 인구 이주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1970년대 이르러서는 샤리 마을에 부동산 투기 열풍까지 불어 닥쳤다. 이에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다름 아닌 100평방미터 갖기 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그들의 터전과 시레토코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11)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http://www.welcometojapan.or.kr> 참조

이러한 활동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실사단(2004년)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12)</sup>.

시레토코재단은 바로 당시 100평방미터 갖기 운동과 8천엔 기부운동을 통해 샨리마을이 출자한 기금으로 설립된 것이다. 100평방 운동에는 모두 49,024명이나 참여했으며, 당시 모은 기부금만도 5억 2천만엔이나 되었다고 한다. 샨리마을에서는 이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존하려 했던 지역의 땅 가운데 97.4%를 사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켜낸 소중한 자연은 오늘날 관광산업으로 발전해 시레토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시레토코 국립공원과 라우스 온천시설에 연간 230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그 중 샨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도 17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시레토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2005년에는 언론매체의 홍보효과로 관광객 수가 20%나 증가했다.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자연센터 인근과 라우스다케산(해발 1661m), 시레토코 5호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5호 탐방로이다. 71,000헥타르(ha)에 이르는 세계자연유산 지역 중 국립공원의 면적은 38,600헥타르(ha)이고, 그 중의 80퍼센트 이상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레토코를 찾는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탐방로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 2) 중국

중국은 6건의 세계자연유산과 4건의 복합유산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무릉원의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1992), 신쑤안 팬더 서식지역(2006), 윈난성 보호구역의 세 하천(2003), 주하이 거우 계곡경관 및 역사지구(1992), 황룡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1992), 중국 남부 카르스트(2007) 등이고 복합유산은 黃山(1990), 아미산(峨眉山)과 낙산 대불(樂山大佛)(1996), 무이산(武夷山)(1999), 泰山(1987) 등이다.

그런데 윈난성 보호구역의 세 하천 지역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2달만인 2003년 9월에 윈난성 정부는 삼강병류 일대의 누강(怒江, Nujiang)에 13개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논란이 됐다.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부지역의 주요 강인 누강(살윈강)과 란창강(메콩강), 진사강(양쯔강)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 2020년까지 수력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세 배로 증가시킨 후 인구와 산업시설이 몰

12) 이용한(2007), '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을 가다'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려있는 동부지역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댐들이 모두 완공되면 세계 최대 수력발전 계획인 삼협댐보다 더 많은 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태국과 버마 사이를 지나 남쪽의 안다만해로 흘러드는 3200km의 살원강(Salween River) 상류를 중국 쪽에서는 누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강/살원강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주요 국제하천으로 중국에서 댐이 건설되지 않고 자유로이 강물이 흐르는 단 돌밖에 남지 않은 강 가운데 하나이다. 윈난성 일대를 흐르는 누강은 세계의 온대지역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곳 가운데 하나인 삼강병류(三江並流: Three Parallel Rivers)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지나며 흐르는데 동방대협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강 주변의 숲과 습지에는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야생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어, '중국 고유 생물종의 중심지'라고 알려질 정도로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중국 내의 세계유산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삼강병류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는 6천 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 동물종의 25% 이상과 중국 동물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들이기도 하다.

댐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의 NGO와 언론인, 국제 환경단체들은 누강 인근 저지대가 물에 잠기면 수많은 희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어류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강에 살고 있는 75종의 어류 가운데 1/3 가량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 2004년 2월에 원자바오 총리는 누강의 모든 수력발전댐 건설 계획을 중지시키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를 명령했다<sup>13)</sup>.

한편 중국은 200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문화유산이 자금성과 이화원, 포탈리궁, 만리장성 등 세계유산 6곳에 대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 정부 관계자의 해명이 이어졌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보존이 시급한 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한라일보, 2007: 51).

### 3) 베트남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한 경우로 베트남의 예를 많이 든다. 2004년의 경우 하롱베이를 찾은 관광객 150여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외국인이었다. 이 가운데 한

13) 마용운(2006),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연합뉴스 2004년 4월 9일 기사 참조

국인이 20만명이나 되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한 달에 3만명이나 이곳을 찾는다. 심지어 하롱베이가 북부 베트남의 경제구조를 탈바꿈시켜 놓을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한라일보, 2005. 09. 23).

하롱베이가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미려한 경관과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 효과라 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한 하롱베이에는 수많은 섬들 사이를 오고가는 유람선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소수의 유럽인들이 이곳의 풍광에 감탄했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미지의 세계였다. 1969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롱베이의 섬들 중 770개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섬들에는 석회암동굴이 있는 곳이 많은데 수억년의 세월을 걸쳐 석회를 머금은 물은 천정으로부터 중유석을 흘려 내려 보내고 바닥에서는 석순을 쌓아올렸다. 몇 개의 섬에서는 4500년 전의 잘 다듬어진 돌도끼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베트남 본토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돌도끼였으며, 혼가이섬에서는 호아빈 문화로 알려진 1만 년 전 인류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이곳은 현재 외국자본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호텔, 리조트 등 위락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현재 성업 중인 호텔만 200여 군데에 이르고 세계유산 섬을 순회하는 유람선이 400여척을 헤아린다. 이 곳 어디를 가도 세계유산 마크와 로고가 달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으며 심지어 다리 교각장식까지 세계유산 마크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하롱베이 관리국은 세계자연유산에 만족하지 않고 이곳의 독특한 문화전통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복합유산으로 발전시키려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4) 벨리즈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벨리즈는 북쪽에 온다강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동부는 카리브해를 면하고 있다. 수도는 벨모판이며 지형은 남부에 마야 산맥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고, 최고봉은 콕스콕산(1122m)이며, 북부를 향해서 고도가 낮아진다. 북부의 해안 평야는 평탄하며, 많은 하천이 카리브해로 흘러간다. 해안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호초로 유명하고 국토의 50%가 산림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임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벨리즈산호초보호구역이 1996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벨리즈 해안을 따라 7개의 해역으로 이루어진 북반구 최대의 산호초 보호지역이다. 길이 250km에 이르는 보초(堡礁)와

3개의 커다란 환초(環礁), 모래로 된 섬들과 맹그로브숲, 개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원형의 환초(環礁)와 수백 개의 산호섬, 맹그로브 숲, 초호(礁湖), 만(灣) 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해안지대로 희귀동식물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산호초에 떠 있는 작은 섬들에는 맹그로브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식물은 500여 종의 물고기와 350종의 연체동물, 갑각류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데, 이들을 먹이로 하는 조류도 많이 모여들어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유지한다. 산호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거대한 초식성 포유류인 카리브매너티와 붉은바다거북, 매부리거북, 갈색사다새, 붉은발부비, 검은제비갈매기 등이 있다(엔사이버백과사전 <http://baekdoo.encyber.com>).

벨리즈 생태관광 개발 과정을 보면 정부와 독립적인 오듀본협회와 같은 생태관광 협의체의 역할이 크다. 개발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969년에 BAS를 설립하였으며 자연의 보호·보존·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위임했다. 다음으로 보호지역과 공원 관리단계로서 생태관광개념 도입, 보전, 교육, 지역주민 참여, 연구, 재정부분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 세분화하여 지역주민의 세부위원회 결성하고 BAS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오듀본 협회(Belize Audubon Society: BAS)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로서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학적 가치를 존속,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969년에 설립되어 1973년에 독립된 단체가 되었다. 처음에 BAS의 역할은 국립공원 시스템 아래 설정된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1984년에 BAS는 다양한 지역의 운영과 개발, 재정적인 면에서 벨리즈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들은 지역을 교육적이고,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BAS가 관리하는 보호지역은 총 7곳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휴양적,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들이 관리 통제하는 보호구역,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은 외국인들이 담당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적 결정권은 BAS이사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에게 맡겨졌다. 이들은 세 번째 성공요인인 교육과 훈련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선택된 보호지역을 따라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 즉 지역 이익의 최대화이다. 예를 들어, 보호지역과 BAS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입장료의 경우, 지역주민과 외국관광객 사이에 차별을 두었는데 보통 외국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요금이 4~5배 높았다. 대부분의 보호지역과 공원의 경우, 입장료, 이용요금, 기부금과 기념품 판매, 관광과 관련된 수입들이 모여져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공원 운영비용을 커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벨리즈의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은 정부의 경제적 인센

티브 지원과 입장료와 이용료의 정수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볼 수 있다 (<http://www.tourlab.com>).

#### 5) 오만

오만의 경우는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사례로 꼽힌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유산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아라비아오릭스보호구역은 오만 중부 아라비아 동쪽 끝 지다드알하라시스평원에 있으며 면적 2만 7500m 이다. 사막지대이지만 여러 종류의 풀과 키 작은 관목들이 자라 아라비아오릭스영양을 비롯하여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의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준다.

아라비아오릭스영양은 소과의 동물로서 아라비아큰영양이라고도 한다. 키 80-100 몸무게 70k 정도이고 길이 50cm 이상의 곧은 뿔과 칙칙한 흰 털을 지녔다. 사람들의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하여 지다드알하라시스평원에 보호구역을 만들어 방목하고 있다. 조류로는 인도작은느시, 검독수리 등 168종이 분포하고 도마뱀, 도마뱀붙이, 뱀 등의 파충류, 아라비아여우, 흰꼬리 모래여우, 고양이과의 카라칼 등의 포유류도 서식한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까지 줄이는 바람에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투표까지 벌이는 격렬한 논의 끝에 세계자연유산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엔사이버 백과사전 <http://baekdoo.encyber.com>).

#### 6)호주

호주에는 대보초(1981), 로드하우 군도(1982), 맥커리 섬(1997), 블루마운틴 산악지대(2000), 샤크 만(1991), 중동부 열대우림지대(1986/1994), 퀸즐랜드 열대습윤지역(1998), 푸눌룰루 국립공원(2003), 프레이저 섬(1992), 허드와 맥도날드 제도(1997), 호주 포유류 화석 보존지구(1994) 등 11건의 세계자연유산이 있다.

이 중 대보초, 중동부 열대우림지대, 퀸즐랜드 열대습윤지역, 프레이저 섬 등 4개가 퀸즈랜드 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퀸즈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태관광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2004년 기준으로 퀸즈랜드 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46%, 외국인 방문객의 80%가 생태관광이나 수영, 서핑, 다이빙 등의 야외활동, 국립공원 방문, 부시워킹, 열대우림 산책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퀸즈랜드 주 정부에서 1997년 '퀸즈랜



드 생태관광 계획(Queensland Ecotourism Plan)'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Queensland Ecotourism Plan 2003-2008'을 새로 수립하여 이전에 수립된 관광 계획에서 제시된 생태관광의 비전과 정의를 새롭게 하는 등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강미희, 2007: 89).

이보다 앞서 호주는 1996년 11월 세계 최초로 생태관광 인증계획을 세워 국가생태관광인증 프로그램인 NEAP(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이 개발됐다(환경부, 2000). 이후 생태관광범위를 자연관광까지 확대, 국가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자연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Nature and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으로 수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절차는 먼저 지원자들이 양식에 따라 자체적인 평가와 함께 신청서를 생태관광 인증 평가단에 제출하면 생태관광 인증평가단(The Ecotourism Accreditation Assessor)은 완성된 지원서를 평가, 최적실행점수를 부여한 후 다시 생태관광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가부간의 결정을 하게 된다. 한번 인증된 관광 상품은 3년간 유효한데 인증 받은 상품은 매년 추가 인증 비용을 부과하고 기준적합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3년경과 후에는 새로운 지원양식을 제출해서 NEAP 기준의 적용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

한편 생태관광 인증평가단의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폭넓은 이해와 감상기회를 주는 자연경험 제공, 자연이해 기회가 경험으로 통합,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최적 실행, 자연환경 보전에 긍정적 기여, 원주민 사회 등의 지역사회에 민감하고 이들의 참여 보장,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기여 제공, 지속적으로 방문객 기대 충족, 정확히 시장 점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 등이다(강미희, 2007).

### Ⅲ. 제주세계자연유산 현황분석

#### 1. 세계자연유산 지정현황

2007년 7월 현재 세계유산은 142개국 85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를 성격별로 보면 문화유산 66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연유산 166건, 복합유산 25건 순이다. 복합유산이 전체유산의 2.9%로 극히 적고, 자연유산이 약 20%를 차지하여 문화유산에 비해 자연유산이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의 분포를 대륙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세계유산의 49.8%가 유럽과 북미에 있으며 이어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와 태평양에는 약 20.5%,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13.8%, 아프리카 8.7%, 아랍 7.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중국 등이 30점을 넘어선 반면 아직 1건의 세계유산도 소유하지 못한 국가가 있다.

〈표3-1〉 대륙별 세계유산 보유현황

구 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계
아프리카	38	33	3	74
아랍	59	3	1	63
아시아와 태평양	119	46	9	174
유럽과 북미	364	51	9	42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80	34	3	117
합계	660	166 <sup>14)</sup>	25	851

자료 : 한라일보(2006 : 25) 인용

이처럼 문화유산과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이 치우치는 불균형을 초래하자 2002년 케임즈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심사를 위해 한 해에 신청하는 유산을 1국 1건으로 제한, 전체 30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한 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건수는 2003년 40건으로 상한 조정되었고, 쑤저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1국 2건의 세계유산 신청을 가능토록 완화시켰지만 이 때 2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유산이나 복합

14) 2003년 등재된 읍스분지의 경우 러시아와 몽골에 걸쳐 있어 아시아와 태평양, 유럽과 북미에 2중으로 기재돼 계산상으로는 167개가 되나 실제로는 166개이다.

유산에 포함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이혜은, 2005: 19).

한편 2007년 6월 23일부터 7월2일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22곳을 세계유산 등재목록에 새로 포함시켰다.

신규 등재된 세계유산 목록으로는 먼저 문화유산의 경우 Richtersveld 문화 및 식물 경관(남아프리카 공화국), Twyfelfontein 암각화 지대(나미비아), 사마라 고고유적도시(이라크 : 위협에 처한 유산에 동시등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호주),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경관(아제르바이잔), 카이핑 마을(중국), 붉은 항구 복합건물(인도), 이와미 은광 및 문화경관(일본), 니사의 파르티아 성채(투르크메니스탄), 리도 운하(캐나다), 달의 항구, 보르도(프랑스), 코르푸 옛 마을(그리스), 갈레리우스 궁전(세르비아), 비셰그라드(Višegrad)의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빅 다리(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라보 포도원 테라스(스위스), 국립대학(UNAM) 중앙대학 도시 캠퍼스(멕시코) 등 16건이다.

자연유산으로는 아치나나나 열대우림(마다가스카르), 중국 남부 카르스트(중국),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한국),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타이드 국립공원(스페인) 등 5건이, 복합유산으로는 Lopé-Okanda 생태계 및 문화경관(가봉) 1건이 있다. 2008년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3-2〉 국가별 세계자연유산목록

국 가	등재건수	명칭 및 등재년도
기니(Guinea)	1	남바산의 자연보호지역(1981)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3	성 루시아 습지공원(1999) 카페 식물구계 보호 지구(2004) 프레드포트둠(2005)
네팔(Nepal)	2	사가르마타 국립공원(1979) 왕립 시트완 국립공원(1984)
노르웨이(Norway)	1	서부 노르웨이 피요르드( 2005)
뉴질랜드(New Zealand)	2	남극연안 섬(1998) 테 와히포우나무 공원(1990)
니제르(Niger)	2	'W'국립공원(1996) 아이르, 테네레 자연보호지역(1991)
도미니카 연방(Dominica)	1	모르네 트로이 피통 국립공원(1997)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9 <sup>15)</sup>	바이칼 호(1996) 버진 코미 산림(1995) 브랑겔 섬의 자연보호 지구(2004)

		씨커트 알린 산맥 중부지역(2001) 알타이 황금산(1998) 웁스분지(2003)-러시아/몽골 캄차카반도의 화산군(1996) 캅카스(코카서스) 서부지역(1999) 큐러니안 모래톱(2000)---
루마니아(Romania)	1	다뉴브강 삼각주(1991)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2	베마라하 자연보호구역(1990) 아치나나나 열대우림(2007)
말라위(Malawi)	1	말라위 호수 국립공원(1984)
말레이시아(Malaysia)	2	구능물루 국립공원(2000) 키나바루 공원(2000)
말리(Mali)	1	반디아가라 절벽(1989)
멕시코(Mexico)	3	시안 카안 생물권 보호지역(1987) 엘 비즈카이노 고래보호 지역(1993) 캘리포니아 겔프 지역의 보호지역 섬(2005)
모리타니아(Mauritania)	1	방 다르긴 국립공원(1989)
몬테네그로(Montenegro)	1	두르미토르 국립공원(1980)
몽골(Mongolia)	116)	웁스분지(2003)
미국(U.S.A)	1217)	그랜드캐년(1979)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공원(1983) 레드우드 국립공원(1980) 맘모스 동굴 국립공원(1981)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1979) 에버글래드 국립공원(1979) 엘로우스톤 국립공원(1978) 올림픽 국립공원(1981) 오세미티 국립공원(1984) 위터튼 글래시아 국제 평화공원(1995) 칼스배드 동굴 국립공원(1995) 하와이 화산공원(1987)
방글라데시(Bangladesh)	1	순다르반(1997)
베네수엘라(Venezuela)	1	카나이마 국립공원(1994)
베트남(Viet Nam)	2	퐁 나케방 국립공원(2000) 하롱 만(1994)
벨로루시(Belarus)	1	벨로베즈스카야 푸시차/바이알로비예자 삼림지대(1979)
벨리즈(Belize)	1	벨리즈 산호초 보호지역(1996)
볼리비아(Bolivia)	1	노엘 캠프 메르카도 국립공원(2000)

불가리아(Bulgaria)	2	스레바르나 자연보호구역(1983) 피린 국립공원(1983)
브라질(Brazil)	7	남동부 대서양림 보호지역(1999) 디스커버리 해안 대서양림 보호지역(1999) 브라질 대서양 제도(2001) 아마존 열대수림 보호지역(2000) 이구아수 국립공원(1986) 케라도 열대우림보호지역(2001) 판타날 보존지구(2000)
세네갈(Senegal)	2	니오콜로-코바 국립공원(1981) 주드 조류 보호지(1981)
세이셸(Seychelles)	2	마이 자연보호 지역(1983) 알다브라(1982)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1	PMA 산지 경관(2004)
솔로몬(Solomon Islands)	1	동 렌넬(1998)
수리남(Suriname)	1	수리남 자연보존지구(2000)
스리랑카(Sri Lanka)	1	신하라자 삼림보호지역(1988)
스웨덴(Sweden)	1	발칸 군도와 하이 코스트(2000)
스위스(Switzerland)	2	성 죠지 산(2003) 알프스 융프라우 지역(2001)
스페인	3	가라호네이 국립공원(1986) 도나나 국립공원(1984/2005) 타이드 국립공원(2007)
슬로바키아(Slovakia)	2	애그텔레크 동굴과 슬로바크의 카르스트 지형(1995) <sup>18)</sup>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2007) <sup>19)</sup>
슬로베니아(Slovenia)	1	스코얀 동굴(1986)
아르헨티나(Argentina)	4	로스 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1981) 발데스 반도(1999) 이구아수 국립공원(1984) 이치구알라스토 타람파야 자연공원(2000)
에콰도르(Ecuador)	2	갈라파고스 섬(1978/2001) 산가이 국립공원(1983)
에티오피아(Ethiopia)	1	시멘 국립공원(1978)
영국(U.K)	4	고프섬과 이넥세시블섬(1995/2004 ) 도싯과 동부 데본해안 절벽(2001) 자이언츠코즈웨이와 연안(1986) 핸더슨 섬(1988)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11	대보초(1981) 로드하우 군도(1982) 맥커리 섬(1997)

		블루마운틴 산악지대(2000) 샤크 만(1991) 중동부 열대우림지대(1986/1994) 퀸즐랜드 열대습윤지역(1998) 푸놀룰루 국립공원(2003) 프레이저 섬(1992) 허드와 맥도날드 제도(1997) 호주 포유류 화석 보존지구(1994)
온두라스(Honduras)	1	리오 플라타노 생물권보호지역(1982)
우간다(Uganda)	2	르웬조리 국립공원(1994) 브윈디 천연 국립공원(1994)
우크라이나(Ukraine)	1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2007) <sup>20)</sup>
이집트(Egypt)	1	와디 알 히탄(2005)
이탈리아(Italy)	2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1998) 에올리안 섬(2000)
인도(India)	5	난다 데비 국립공원(1988) 마나스 야생동물 보호지역(1985) 순다르반스 국립공원(1987) 카지랑가 국립공원(1985) 케올라디오 국립공원(1985)
인도네시아(Indonesia)	4	로렌쯔 국립공원(1999) 수마트라의 열대우림지역(2004) 우중쿨론 국립공원(1991) 코모도 국립공원(1991)
일본(Japan)	3	시라카미 산치(1993) 시레토코(2005) 야쿠시마(1993)
잠비아(Zambia)	1	모시 오아 툰야 : 빅토리아 폭포(1989) <sup>21)</sup>
중국(China)	6	무릉원의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1992) 신추안 팬더 서식지역(2006) 원난성 보호구역의 세 하천(2003) 주자이거우 계곡경관 및 역사지구(1992) 황룡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1992) 중국 남부 카르스트(2007)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1	마노브-군다 성 플로리스 국립공원(1988)
짐바브웨(Zimbabwe)	2	마나 폴스 국립공원 : 사피·츄어수렵지역(1984) 모시 오아 툰야 : 빅토리아 폭포(1989) <sup>22)</sup>
카메룬(Cameroon)	1	드야의 동물 보호구역(1987)
캐나다(Canada)	8 <sup>23)</sup>	그로스 문 국립공원(1987) 나하니 국립공원(1978) 미구야사 공원(1999)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1979)



		알버타주 공룡공원(1979)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1983) 위터톤 글래시아 국제 평화공원(1995) 캐나디언 록키산맥공원(1984)
케냐(Kenya)	2	시빌로이/중앙섬국립공원(1997) 케냐국립공원(1997)
코스타리카(Costa Rica)	3	구아나카스트 보호지역(1999) 라 아미스테드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1983) <sup>24)</sup> 코코스 섬 국가 공원(1997)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2	코모에 국립공원(1983) 타이 국립공원(1982)
콜롬비아(Colombia)	2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1994) 말페로 동식물 안식처(2006)
콩고(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5	가람바 국립공원(1980) 비룽가 국립공원(1979) 살롱가 국립공원(1984) 오카피 야생생물 보존지구(1996)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1980)
쿠바(Cuba)	2	데셈바르코 델 그란마 국립공원(1999) 훔볼트 국립공원(2001)
크로아티아(Croatia)	1	플리트비스 호수 국립공원(1979)
타이(Thailand)	2	동 파안예-카오 예 숲(2005) 툐야이 후아이 카칭 동물 보호구역(1991)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4	느고론고로 자연보호지역(1979) 세렌게티 국립공원(1981) 셀로스 동물 보호지역(1982) 킬리만자로 국립공원(1987)
튀니지(Tunisia)	1	이츠케울 국립공원(1980)
파나마(Panama)	3	다리엔 국립공원(1981) 라 아미스테드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1983) <sup>25)</sup> 코이바 국립 공원(2005)
페루(Peru)	2	마누 국립공원(1987) 후아스카란 국립공원(1985)
포르투갈(Portugal)	1	마데이라의 라우리실바(1999)
폴란드(Poland)	1	벨로베즈스카야 푸시차/바이알로비에자 삼림지대(1979)
프랑스(France)	1	지롤라타 꽃(山甲)과 포르토만, 스캔돌라 자연보호지역(1983)
핀란드(Finland)	1	발 칸 군도와 하이 코스트(2000)
필리핀(Philippines)	2	투바타 암초 해양공원(1993)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1999)

한국(Korea, South)	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헝가리(Hungary)	1	애그텔레크 동굴과 슬로바크의 카르스트 지형(1995) <sup>26)</sup>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와 엔사이버 백과사전 참조해 작성

〈표3-3〉 국가별 세계복합유산 목록

국 가	등재건수	명칭 및 등재년도
가봉(Gabon)	1	로페-오칸다 생태계 및 문화경관(2007)
과테말라 (Guatemala)	1	티칼 국립공원(1979)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ormer Yugoslav REP. of Macedonia)	1	오흐리드 지방의 역사건축물과 자연(1980)
그리스 (Greece)	2	메테오라(1988) 아토스 산(1988)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1	우카람바/드라켄스버그 공원(2000)
뉴질랜드(New Zealand)	1	통가리로 국립공원(1990/1993)
말리(Mali)	1	말리 반디아가라 절벽(1989)
스웨덴(Sweden)	1	라포니안 지역(1996)
스페인(Spain)	1	이비자 생물다양성과 문화(1999)
알제리(Algeria)	1	타실리 나제르(1982)
영국(U.K)	1	성 킬다섬(1986/2004/2005)

- 15) 읍스분지(2003)-러시아/몽골
- 16) 읍스분지(2003)-러시아/몽골
- 17)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1979), 워터톤 글래시아 국제 평화공원(1995)-미국/캐나다
- 18) 애그텔레크 동굴과 슬로바크의 카르스트 지형(1995)-헝가리/슬로바키아
- 19)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2007)-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 20)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2007)-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 21) 모시 오아 툰야 : 빅토리아 폭포(1989)-잠비아/짐바브웨
- 22) 모시 오아 툰야 : 빅토리아 폭포(1989)-잠비아/짐바브웨
- 23)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1979), 워터톤 글래시아 국제 평화공원(1995)-미국/캐나다
- 24) 라 아미스테드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1983)-코스타리카/파나마
- 25) 라 아미스테드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1983)-코스타리카/파나마
- 26) 애그텔레크 동굴과 슬로바크의 카르스트 지형(1995)-헝가리/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4	카카두 국립공원(1981/1987/1992) 월랜드라 호수지역(1981) 타즈매니안 야생지대(1982/1989) 울루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1987/1994 )
중국(China)	4	黃山(1990) 아미산(峨眉山)과 낙산 대불(樂山 大佛)(1996) 무이산(武夷山)(1999) 泰山(1987)
터키(Turkey)	2	케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유적(1985) 히에라폴리스-파무칼레(1988)
페루(Peru)	2	마추 피추 역사 보호지구(1983) 리오 아비세오 국립공원(1990/1992)
프랑스(France)	1	피레네-몽 페르 뒤(1997/1999)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와 엔사이버 백과사전 참조해 작성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쿠아도르), 니오콜로-코바 국립공원(세네갈), 사마라 고고유적도시(이라크) 등 3건을 신규 등재하고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미국), 리오 플라타노 생물권보호지역(온두라스) 아보메이 왕궁(베닌), 카트만두 계곡(네팔) 등 4건을 제외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간 유산 중 파괴 위험에 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크로아티아의 역사도시를 복원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후에궁전, 예멘공화국의 사나 역사도시도 유네스코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특별 관리되는 세계유산은 다음과 같다.

〈표3-4〉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연번	국 가	유산명 (영문)	세계유산등록연도	위험유산등록연도	기타
1	예루살렘	예루살렘 (Old City of Jerusalem and Its Walls)	1981	1982	문화
2	페루	찬찬 고고 유적지대 (Cahn Chan Archaeological Zone)	1986	1986	문화
3	코트디부아르/기니	님바 산맥 자연 보호 구역 (Mount Nimba Nature Reserve)	1981	1992	자연
4	인도	마나스 야생동물 보호지역 (Manas Wildlife Sanctuary)	1985	1992	자연
5	니제르	아이르 테네레 자연 보호 구역 (Air & Tenere Natural Reserves)	1991	1992	자연

6	콩고	비룽가국립공원(Virunga National Park)	1979	1994	자연
7	콩고	가람바국립공원(Garamba National park)	1980	1996	자연
8	에티오피아	시멘 국립공원(Simen National Park)	1978	1996	자연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마노보-군다 생 플로리스 국립공원 (Manovo-Gounda St. Floris National Park)	1988	1997	자연
10	콩고	카후지_비에가 국립공원 (Kahuzi-Biega National Park)	1980	1997	자연
11	콩고	오카피아생생물보호구 (Okapi Wildlife Reserve)	1996	1997	자연
12	콩고	살롱가국립공원(Salonga National Park)	1984	1999	자연
13	파키스탄	라호르 성과 샬라마르 정원 (Fort and Shalamar Gardens in Lahore)	1981	2000	문화
14	예멘	자비드 역사 도시 (Historic Town of Zabid)	1993	2000	문화
15	이집트	아부 메나 그리스도교 유적 (Abu Mena-Christian Ruins)	1979	2001	문화
16	필리핀	필리핀의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1995	2001	문화
17	아프가니스탄	얌의 첨탑과 고고학적 유적 (Minaret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Jam)	2002	2002	문화
18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계곡의 문화경관과 고대유적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y)	2003	2003	문화
19	아제르바이젠	바쿠 성곽도시(Walled City of Baku with the Shirvanshah's Palace and Maiden Tower)	2003	2003	문화
20	코트디브와르	코모에 국립공원 (Comoe National Park)	1983	2003	자연
21	이라크	아슈르 (Ashur(Qal'at Sherqat))	2003	2003	문화
22	이란	밤지역 경관(Bam and its Cultural Landscape)	2004	2004	문화
23	탄자니아	킬와 키시와니/송고므나라 유적(Ruins of Kilwa Kisiwani and Ruins of Songo Mnara)	1981	2004	문화
24	베네수엘라	코로항구(Coro and its Port)	1993	2005	문화
25	칠레	험블톤과 산타로라의 초석 작품(Humberstone and Santa Laura Saltpeter Works)	2005	2005	문화
26	독일	드레스덴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	2004	2006	문화

27	세르비아	코소보의 지중해 기념군 (Medieval Monuments in Kosovo)	2004	2006	문화
28	에쿠아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Galápagos Islands)	1978/ 2001	2007	자연
29	세네갈	니오클로-코바 국립공원 (Niokolo-Koba National Park)	1981	2007	자연
30	이라크	사마라 고고유적도시 (Samarra Archaeological City)	2007	2007	문화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 참조해 작성

##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으로는 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외에 문화유산으로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불국사·석굴암(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등 7건이 있다<sup>27)</sup>.

### ①창덕궁 (문화유산)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창덕궁이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 ②수원화성 (문화유산)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세계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 ③불국사·석굴암 (문화유산)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되었다. 석굴암

2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및 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재정리한 것임.



은 신라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그 조영계획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 ④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유산)

1995년 12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불교경전 중 가장 완벽하고 중요한 경전이며, 장경판전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관을 위해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의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⑤종묘 (문화유산)

한국의 종묘는 태실이 19칸인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이 매우 길고 수평성이 강조된 독특한 형식의 건물모습은 종묘제도의 발생지인 중국과도 다른 건축양식이며 서양건축에서는 전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유형이다.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⑥경주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 ⑦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은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제는 물론 당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이 외에 향후 등재 가능성이 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는 2008년 3월 1일 현재 문화유산으로 강진 도요지, 무녕왕릉, 삼년산성, 안동 하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조선왕릉이, 자연유산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이 있다.

특히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의 경우 2008년 1월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등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억년전 공룡이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는 200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상태로 2006년 국내 잠정목록 재평가에서 '등재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져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8월께 자연유산 평가 국제 전문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들이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를 방문, 현장 실사를 하고 2009년 상반기에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전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한편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199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했으나 개발제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IUCN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설악산은 인접국가의 다른 산들과의 차별성 부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역의 상당부분이 농토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화와 과도한 관광개발,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등의 이유로 지정에 실패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IUCN 실사단이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플래카드를 내걸어 집단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가 하면 또 일부 주민들은 프랑스의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가 반대공문을 접수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유네스코에서는 최근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강순석, 2006: 63-65).

### 3. 제주세계자연유산 현황분석

#### 1) 등재과정

##### (1)추진경과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세계유

산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신청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세계자연유산 등재 안건이 찬반투표 없이 원안 가결되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자연보존지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이후 2002년 제주도자연유산지구로 명칭변경 과정을 거쳐 등재됐는데 1994년 이후 13년만에,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한 2001년 이후 6년만에 일궈낸 결과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두 차례나 시행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당초 제주도에서는 2003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뢰,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화산지질과 용암동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학술용역을 문화예술과 고고학 등이 주축을 이룬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뢰함으로써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신청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인 2004년 말 문화재청의 영문신청서도 제출할 수 없었고 2005년 또다시 학술용역을 실시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신청은 그만큼 늦어지는 결과를 빚었다(강순석, 2006: 62-63). 제주도청 담당자들이 유산유산과 자연유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5년간의 학술조사와 자료수집단계를 거쳐, 2006년 1월 제주자연유산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성산일출봉 3개 유산지구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주제 아래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된 자연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06년 10월 제주도에 평가자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 5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다.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위원으로 참가한 21개 위원국은 IUCN이 평가하고 등재 권고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7건의 문화유산 외에 자연유산이 추가되며 문화유산 편중에서 벗어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전 세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이 3/4을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1〉 제주자연유산 현지실사

자료 : 2006년 10월 16일 IUCN의 폴 딩윌 자문관(왼쪽)이 제주도청을 방문, 브리핑을 등기에 앞서 홍보물을 보고 있다. 연구자 촬영

〈표3-5〉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

일 정	내 용
2001.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02. 3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우선 신청대상으로 결정
2003 ~ '05	신청지구에 대한 학술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2006.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2006. 6. 13 ~ 9. 5	유산신청지구 주민설명회(12회)
2006. 8. 11 ~ 8. 13	본실사 대비 제1차 자체 예비실사
2006. 8. 16	제주 자연유산사랑 출정식(3개 지구 동시)
2006. 8. 16 ~ 10. 31	등재기원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148만명)
2006. 8. 22 ~ 9. 30	유산지구내 안내판 및 시설물정비
2006. 9. 11 ~ 9. 13	본실사 대비 마무리 자체 예비실사
2006. 9. 23	세계유산등재기원 제주사랑 다짐결의대회
2006. 10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현지실사
2007. 2	외교협력 간담회 개최
2007. 3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대비 실무T/F팀 운영
2007. 3	IUCN 2차 패넌회의 외교활동 전개



2007. 4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외교활동 전개
2007. 5. 11	외교협력 전략회의 개최
2007. 5. 12	'제주자연유산 등재' 공식 권고(IUCN → 유네스코)
2007. 5. 23 ~ 5. 31	외교통상부 합동 특별 외교활동 전개
2007. 6. 2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재구성

## (2) 등재신청서의 주요 내용 및 IUCN 평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유산의 정의, 기술, 등재의 정당성, 보존의 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자원의 보존관리, 모니터링, 기록물, 연락처 등 8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부록이 8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김찬수, 2006: 7-8).

유산의 정의는 다시 나라, 도, 유산이름, 지리좌표, 신청유산과 완충지역을 나타내는 도면, 신청유산과 완충지대의 면적 등의 내용으로 되었다. 기술 부분에서는 유산의 기술, 역사와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등재의 정당성에서는 등재의 기준, 뛰어난 세계적 가치의 기술, 비교분석, 완전성과 혹은 순수성에 대한 내용, 보존의 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서는 현재 보존상태를 기술하고 개발압력, 환경압력, 자연재해와 위기관리, 방문객 등 관광압력, 유산과 완충지대 내의 거주자 수와 같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원의 보존관리에서는 소유주, 보호물지정, 보존집행수단, 자원보존관련 계획, 유산자원관리 계획, 기금원천 및 운영수준, 전문가 자원체계와 교육체계, 관광시설 및 연간 관광계획, 홍보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자원관리 인력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링에서는 보존상태 핵심지표들, 자원의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기구, 유산과 관련한 선행 연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기록에 관련해서는 사진, 대상자원의 법적, 제도적 보전장치 및 관련계획 세부내용, 각종 기록물, 기록물의 보관 장소, 참고문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락 부문에서는 준비책임자, 관련기관, 공식홈페이지 등으로 되어 있다.

부록은 총 8개인데 신청유산과 완충지대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생물상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생물상,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동굴측량도, 단면도, 사진첩, 관련법규, 관련조례, 지침, 예규, 관련계획, 자원보존 및 관리계획, 지정지역 토지조서 등이다.

이와 관련 2006년 10월 제주도에 평가자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한 IUCN은 2007년 5월 제출한 기술심사 보고서<sup>28)</sup>를 통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



을 권고하고 있는데 등재기준(7) : 빼어난 자연현상 내지 자연경관과 미적 가치에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전 세계 유사 동굴계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런 종류의 용암동굴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조차 상당한 시각적 파장을 일으킨다. 총천연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동굴 바닥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고 탄산염 침전물이 어두운 용암 벽에 벽화를 그려 놓은 듯 부분 부분 위치하고 있어 특유의 장관을 이룬다. 요새 모양의 성산일출봉은 벽면이 해양 밖으로 솟아나와 극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계절에 따라 그 색과 구성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형성물, 주상절리 절벽, 분화구에 호수가 형성된 정상부위가 경관 및 미적 가치를 더한다”고 밝혔다.



〈그림3-2〉제주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자료 : 연구자 촬영. 성산일출봉은 해저에서 분출한 수성화산이다.

이어 등재기준(8) : 지구 역사, 지질 및 지표 특성과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는 정지하고 있는 대륙지각판 위의 열점 상에 생성된 순상화산으로 규모면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 용암동굴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며 중요도가 높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또한 2차 탄산염 생성물(중유석 및 기타 화산 형성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양성과 풍부함에서 다른 용암동굴을 훨씬 압도한다. 성산일출봉은 그 구조 및 퇴적학적 특성이 드러나 있는 드문 경우로 써지안 방식의 화산분출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고 평

28) 2006년 10월 폴 당월 자문관의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작성, 2007년 5월 제출된 IUCN의 기술심사보고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등재신청번호 1264’는 총 21쪽 분량으로 1. 신청문서, 2. 자연적 가치의 요약, 3. 다른 지역과의 비교, 4. 원형보존성, 5. 기타의견, 6. 등재기준의 적용/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 7. 권고사항 등의 순으로 기재돼 있다.

가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비교’ 항목에서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용암동굴”이라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동굴들은 그 길이나 양적 규모, 복잡한 통로 구조, 동굴 내부의 용암 지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장관을 이루는 2차 생성물, 접근 용이성, 그리고 이들의 과학 및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다른 지역에도 길이나 양적 측면에서 제주도 용암동굴에 필적하는 것들이 있으나 이들은 보호 수준이나 접근성, 훼손도 측면에서, 혹은 형성 내지 보존도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비교했다.

한편 IUCN은 제주자연유산의 원형보존성-관리와 관련,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검토 이유로는 제주시 외곽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에 이미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징을 전시 설명하는 특별전시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운영 수준을 보이는 돌문화공원이 아직 미완공 상태이며 후보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전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협 요소 및 인간에 의한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농업활동으로 인해 비료가 용암동굴 내부로 스며들 가능성이 현장실사 기간에 제기됐다며 기존에 농경지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개간된 지역을 자연 식생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유산지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수의 탐방객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 지상에서의 경작 활동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지하 환경에 미치지 않도록 완충지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유산에 포함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위치한 주요 화산지형 및 제주도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관리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제주도의 다른 주요 화산 동굴계 및 화산 지형까지 등재신청 유산 범위를 확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것 등이다.

## 2) 개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면적은 1만8845ha로 이중 핵심지역은 9475ha, 완충지역은 9370ha이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1%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뱀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성산일출봉 응회구 등이다.



〈그림3-3〉 제주자연유산 지도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유산 명칭	한라산천연보호구역(Hallasan Natural Reserve)
유산 면적	164.401km <sup>2</sup> (핵심지역 90.931km <sup>2</sup> , 완충지역 73.474km <sup>2</sup> )
문화재지정현황	천연기념물 182호(1966년)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한라산(1950m)은 황해 대륙붕 위에 만들어진 대륙붕형 방패형 화산으로 1966년과 1970년에 각각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현무암 및 조면암질 용암 그리고 각종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부에는 ‘백록담’으로 불리는 작은(깊이 108 m, 직경 약 550 m) 분화구가 만들어져 있다. 화산체의 크기에 반하여 칼데라(caldera: 직경 1 km 이상의 화산함몰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3-4〉 제주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백록담

자료 : 연구자 촬영. 왼쪽에 보이는 바위들이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형성 전반기의 수성화산활동이 끝나고 용암분출이 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중기 플라이스토세 이후(78만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분화구 주변의 암석은 더욱 최근(수만 년에서 수천 년 전 사이)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라산의 화산활동은 선사시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라산의 형성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록담 분화구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도 화산지형과 암석을 신선한 상태로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부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라산 정상부가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용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백록담 분화구의 서쪽 절반은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돔(dome)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 동쪽 절반은 점성이 낮은 조면현무암(trachybasalt)으로 이루어져 지형이 완만한 편이다. 또한 분화구 남쪽으로는 조면암 돔의 붕괴에 의해 깎아지른 듯 한 절벽이 만들어져 있다. 한라산 정상부와 달리 아래쪽의 측면부에는 몇몇 큰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영실기암에서는 주상절리와 함께 화산체의 침식과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잘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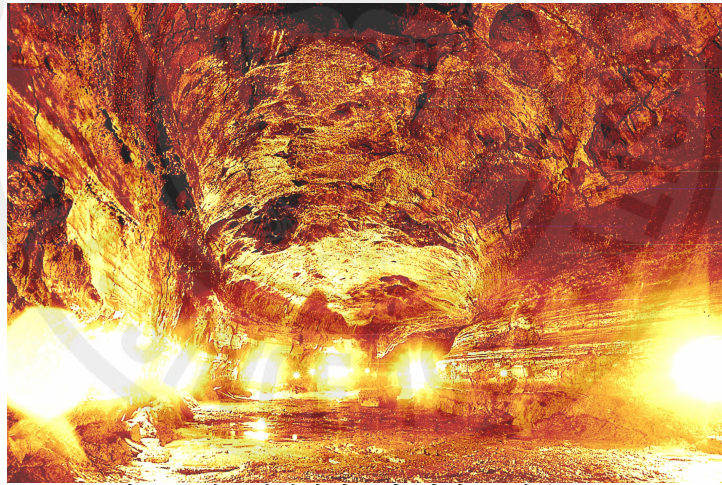
## (2)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유산 명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
유산 면적	22.367km <sup>2</sup> ( 핵심지역 3.303km <sup>2</sup> , 원충지역 19.064km <sup>2</sup> )

문화재지정현황	거문오름 : 천연기념물 제444호 2005년 벵뒤굴 : 천연기념물 제490호 2008년 김녕굴 및 만장굴 : 천연기념물 제98호 1962년 당처물동굴 : 천연기념물 제384호 1996년 용천동굴 : 천연기념물 제466호 2006년 ※ 벵뒤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2호(1999년)지정 관리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변경지정 됨
---------	---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구좌읍 덕천리에 이르기까지 분포한다. 이 동굴계는 해발 454m의 작은 화산인 거문오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출된 다량의 현무암질 용암류(熔岩流: lava flow)가 지표를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약 13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는 동안 형성된 일련의 용암동굴들의 무리를 말하며, 형성 시기는 약 30만년전에서 10만년전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5〉제주세계자연유산 만장굴 내부

자료 : 연구자 촬영. 현재 탐방객들에게 개방되는 구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용암동굴에는 거문오름에 가까운 순서로 선흘수직동굴, 벵뒤굴, 북오름동굴, 대림동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있으나 계속해서 더욱 많은 동굴들이 발견될 것으로 판단된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동굴 중에서 벵뒤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동굴들은 규모가 크며 생성시기가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의 내부 구조



나 각종의 많은 동굴생성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내부 경관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① 벵뒤굴 : 벵뒤굴은 약 10~30만 년 전 형성된 용암동굴로 전체 길이는 약 4481m인데 제주도 용암동굴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는 미로굴이다.

② 만장굴 : 만장굴은 총 길이가 약 7416m로 주 통로는 폭이 18m, 높이가 23m에 이르는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이다. 만장굴 내에는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산호, 용암곡석, 용암기포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이 발달했고 특히 개방구간 끝에서 볼 수 있는 약 7.6m의 용암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③ 김녕굴 : 총 길이가 705m인 김녕굴은 꾸불꾸불한 동굴의 형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굴 혹은 뱀굴이라고 불리며 뱀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천연동굴 가운데 만장굴과 더불어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④ 용천동굴 : 용천동굴은 2005년 5월 전신주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됐는데 측정된 동굴의 길이는 약 2.5km이다. 동굴 내부에는 토기, 돌탑, 전복 껍질, 숯 등 과거 인간이 출입했던 흔적과 동물 뼈가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흔적으로 보아 김녕굴과의 사이에 있던 입구가 모래층에 의해 막히면서 더 이상 사람이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암이 흘러내린 동굴의 끝 부분에는 길이가 200m 이상 되는 호수가 있다.



〈그림3-6〉제주세계자연유산 용천굴 내부

자료 : 연구자 촬영. 동굴벽면의 하얀 부분이 석회성분이 유입돼 만들어진 석회질 동굴생성물이다.

⑤ 당처물동굴 : 당처물동굴은 1995년 밭을 정리하던 지역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는데 총 길이는 110m, 폭은 1·15m, 높이는 0.5~2.5m 정도이다. 조개껍데기처럼 석회성분을 가

진 여러 생물의 골격물 등 주변의 얇은 바다에 퇴적되었던 탄산염퇴적물이 바람에 날려와 이 동굴 위에 사구로서 퇴적된 후 빗물에 녹은 석회성분이 동굴 속으로 유입되고 다시 침전되며 수많은 석회질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



〈그림3-7〉제주세계자연유산 당치물동굴 내부

자료 : 연구자 촬영. 당치물동굴의 끝부분으로 석주와 석순, 종유석 등이 발달해 있다.

### (3) 성산일출봉 응회구

유산 명칭	성산일출봉 응회구(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유산 면적	1.688km <sup>2</sup> (핵심지역 0.518km <sup>2</sup> , 완충지역 1.17km <sup>2</sup> )
문화재지정현황	천연기념물 420호(2000년)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성산일출봉은 약 5천년전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서지안타입(Surtseyan) 수성화산활동(hydrovolcanism)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응회구(凝灰丘)이다. 제주도의 오름들이 대부분 하와이형(Hawaiian) 또는 스트롬볼리형(Strombolian) 분출에 의해 터져 나온 분석(scoria, 제주어로 '송이'라 함)이 쌓여 만들어진 분석구(scoria cone)인 반면 성산일출봉을 비롯한 제주의 몇몇 오름들은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이나 지하수 따위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함께 폭발을 일으키며 터져 나온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수성화산(hydromagmatic volcano)들이다 수성화산은 분화구의 직경과 높이, 사면의 경사에 따라 응회환(tuff ring) 또는 응회구(tuff cone)로 구분하는데, 성산일출봉은 높이 180 m, 분화구 직경이 약 600 m, 지층의 경사각은 최대 45, 분화구 바닥은 해발고도 90 m로서 전형적인 응회구의 지형을 지니

고 있다.



〈그림3-8〉제주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응회구

자료 : 연구자 촬영. 일출봉은 외부 측면이 과도에 의해 침식돼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분출 도중 다량의 물이 화구(volcanic vent)로 섞여 들어가 화산쇄설물이 매우 습하고 끈적끈적한 상태로 분출하였으며 이 때문에 성산일출봉에는 습한 분출(wet eruption)을 지시하는 다양한 지질구조들이 만들어졌다. 수성화산활동은 분출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때문에 분화구가 용암이나 분석으로 채워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사발 모양으로 남게 되었다.

성산일출봉은 북서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면이 모두 과도에 의해 침식되어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침식의 결과,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내부 지층(intracratere strata)부터 가장자리 지층까지 화산체의 완벽한 단면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질단면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성산일출봉의 다양한 내부구조는 성산일출봉의 과거 화산활동을 해석하는데 이용됨은 물론 전 세계 수성화산의 분출과 형성과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산일출봉과 유사한 수성화산들이 무수히 많으나 성산일출봉과 같이 응회구의 지형을 잘 간직함과 동시에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를 훌륭히 보여주는 응회구는 없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와 뛰어난 경관 때문에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으며 인류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화산이다.



### 3) 관리 현황

#### (1)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출범<sup>29)</sup>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출범, 제주 세계자연유산 3개 지역(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존에 한라산국립공원과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는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신설되면서 통합되어,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대한 보존-관리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총괄관리부(총괄관리팀, 연구팀, 용암동굴관리팀)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보호관리팀, 성판악관리팀, 영실관리팀, 탐방안내소 관리팀)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출범과 함께 『2008년 세계자연유산 선진도약 원년』을 목표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선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글로벌 홍보를 통해 천혜의 땅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전 세계 20여 개국 동굴전문가가 참가하는 제13차 국제용암동굴학회 개최,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 트레킹 대회 성공적 개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개 유산지구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사항에 따라 단계적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국비 절충을 해 나가는 한편 3개 유산 지구에 대한 학술조사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2) 세계자연유산의 홍보 현황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홍보 안내판을 3개 유산지구에 설치했다.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3개 유산지구 진입로에 있는 11개소 홍보판을 디자인과 내용을 전면 교체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 안내판으로 정비했는데, 유산지구 방문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지정 내용을 더 자세히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정비된 홍보 안내판에는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 지정 현황, 세계유산 마크와 함께 부착돼 있으며 UNESCO 세계유산 인증서가 3개 국어로 게시

29)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12일자 보도자료

되어 관람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만장굴 입구 일주도로변 대형 홍보판에도 세계자연유산 제주 환영 문구를 4개 국어로 안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sup>30)</sup>



〈그림3-9〉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물들<sup>31)</sup>

자료: 제주도의 홍보물을 수집해 연구자 촬영

이와는 별도로 UNESCO 세계자연유산 가이드 북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소책자 1만부를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 계의 특징과 사진 자료를 담은 이 책자는 총 32페이지 분량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Q&A(질문/답변) 형태로 꾸며졌다.

이와 관련 우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안내원 및 통역 가이드 등 500명에게 가이드북을 배포,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의 숨은 가치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내 전 초중고교 및 교육기관, 전국 학교에 배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보존 가치를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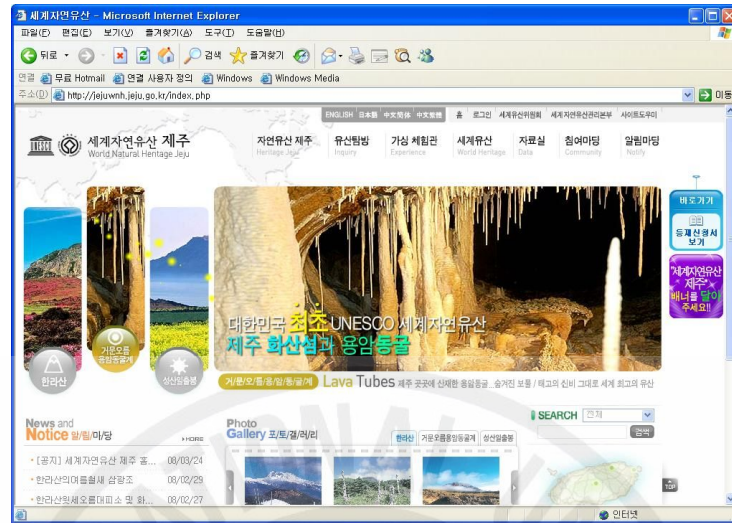
또 제주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http://jejuwnh.go.kr>)가 4개 국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새 봄 온라인 홍보에 나섰는데 기존에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를 중국어(간체, 번체)와 일어를 포함한 4개 국어로 확대 개편해 4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홈페이지가 리뉴얼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링크를 확대해 가며 온라인 홍보를 강화, 우선 네티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30)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20일자 보도자료

31) 이들 중 책자형 홍보물은 아랫부분 2개(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과 한라산 탐방안내서)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1쪽의 홍보물이다. 특히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안내책자에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안내와 등재 의의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 나머지 홍보물은 해당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구성에 그치고 있다.



로 ‘제주 세계자연유산 배너 달기 캠페인’ 을 시작했는데 네티즌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세계자연유산 제주 배너를 달아 민간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참여 캠페인이다.



〈그림3-10〉 제주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 (3)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개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가 2008년 4월 21일 개관했다. 한라산 어리목에 들어선 한라산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정보 공간이자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 장소로서 알차게 꾸며져, 우리나라 최고(最高)라는 한라산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국제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양한 체험을 연계한 탐방안내소가 개관함으로써 한라산 등반이 어려웠던 노약자 및 어린이 들에게 어승생 오름과 함께 자연학습 탐방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상 정복 위주의 탐방형태에서 벗어나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숨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여유 있게 만끽해 한라산 탐방의 특별한 추억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탐방안내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대비해 지난 200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국비 총 68억원이 투입되어 연건평 1,485㎡(1층 788.20㎡, 2층 456.22㎡, 지하 240.58㎡) 지상 2층으로 완공됐다. 탐방안내소는 크게 기획 전시실과 영상관, 제 1~3 전시실, 자료실, 창작교실 및 야외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라산과 관련된 사진, 영상, 자료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제 1-3 전시실에는 한라산의 탄생과 설화, 지형·지질, 역사 속의 흔적들, 사계절의 모습, 동·식물, 숲속체험, 안전 365일 등이 관람객의 동선에 맞추어 다양하게 꾸며졌고 창작교실에 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한라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탐방 시설로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누구나 참여하여 탐방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전자 방명록, 인터넷 검색실 등 최신 설비와 함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 안내원 8명이 상주하면서 자연해설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탐방안내소의 자연해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강해 향후 성판악, 영실, 관음사 등 다른 등산로 입구에도 소규모 탐방안내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sup>32)</sup>

#### (4) 방문객 현황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유산지구별 방문객 증가세가 뚜렷함에 따라 2008년 3개 유산지구(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방문객 목표를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63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3개 유산지구의 방문객 총계를 살펴보면 2004년 231만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005년 238만명으로 전년대비 3.1%가 늘어났다. 2006년 225만명으로 전년대비 5.4% 감소세를 보인 방문객 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2007년도에는 239만명이 다녀가 5.7%가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도 방문객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라산이 전년대비 80만4천명으로 7.9%, 성산일출봉은 119만명으로 9% 증가했으며 만장굴은 38만 4천명으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최악의 재해로 기록된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만장굴이 침수되어 일부구간이 폐쇄되는 등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했던 때문이다. (만장굴 안전진단 및 정비 후 2008년 3월 1일부터 정상 개방)

한편 2008년 들어서도 3개 유산지구의 관람객 추이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라산의 경우에 1월 7만 1천명, 2월에는 5만 8천명이 방문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 6%가 증가했다. 성산일출봉의 경우에는 1월 7만2천명, 2월 5만8천명이 방문해 각각 1.5%, 8%가 늘었다. 특히 만장굴의 경우 복구 정비로 일부구간만 개방되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1월과 2월에 모두 4만7천명이 방문해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008년 세계자연유산 지구 방문객 유치 목표를 2007년

32)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4월14일자 보도자료

보다 10.5% 늘어난 263만명(한라산 88만명, 성산일출봉 130만명, 만장굴 45만명)으로 정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 국내외 홍보를 중점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개 유산지구 25만 3천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 목표를 올해 에는 31만명(전년대비 22.5% 증가)으로 설정하고 있다.<sup>33)</sup>

〈표3-6〉 연도별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2004	2,308,976	668,794	1,197,296	442,886
2005	2,380,575(↑3.1%)	734,238	1,226,623	419,714
2006	2,252,556(↓5.4%)	745,308	1,093,097	414,151
2007	2,381,988(↑5.7%)	804,887	1,192,556	384,545
<b>2008(목표)</b>	<b>2,630,000(↑10.5%)</b>	<b>880,000</b>	<b>1,300,000</b>	<b>450,000</b>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표3-7〉 2006~2008년 1월~2월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2006	252,208	41,053	46,367	67,239	50,319	23,338	23,892
2007	288,014	64,584	54,497	71,614	54,004	25,522	17,793
2008	307,319	71,129	57,839	72,756	58,360	24,579	22,656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표3-8〉 2008년 유산지구별 방문객 유치목표 (단위 : 천명)

구분	'08년 목표	비고	'07년 실적	비고

33)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11일자 보도자료

계	2,630	내국인 : 2,320 외국인 : 310	2,380	내국인 : 2,127 외국인 : 253
한라산	880	내국인 : 873 외국인 : 7	804	내국인 : 798 외국인 : 6
성산일출봉	1,300	내국인 : 1,010 외국인 : 290	1,192	내국인 : 954 외국인 : 238
용암동굴계	450	내국인 : 437 외국인 : 13	384	내국인 : 375 외국인 : 9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2008년 3월 말 현재까지 외국인 관람객 방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성산일출봉은 43,472명, 만장굴은 6,430명이 방문해, 지난해 각각 30,430명, 2,380명이 온 것에 비해 동기 대비 42.8%, 170.2%가 증가했다.

만장굴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외국인 관람객 중 일본인이 6,235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객 수도 지난해 2,101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급증했고 성산일출봉은 이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중 중국인이 79.6%인 34,608명을 차지해 성산일출봉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sup>34)</sup>

〈표3-9〉 성산일출봉, 만장굴 외국인 관람객 추이 (단위 : 명)

구 분	성산일출봉		만장굴		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중국어권	25,664	34,608	17	39	25,681	34,647
일본어권	4,281	8,313	2,101	6,235	6,382	14,549
영어권 등	494	551	262	156	756	707
계	30,439	43,472	2,380	6,430	32,819	49,903

자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34)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28일자 보도자료



#### 4. 한라산국립공원 현황분석

##### 1) 개요

제주도는 1825 $km^2$ 의 면적에 동서로 73km 남북으로 31km인 타원형으로 형성돼 있다. 한라산은 1966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1호)으로 지정된 이후 7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73년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2008년까지 이어지다가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산하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8.3%에 해당하는 151.35 $km^2$ 가 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전국의 국립공원 중 경주와 더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1970년 3월 16일 지정됐다. 지정에 앞서 1969년 9월 건설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쳤는데 공원구역은 동쪽은 5.16도로 외곽 500고지 이상과 서쪽은 제2횡단도로 1100고지에서 서귀포 돈내코 상류를 거쳐 수악교간, 북쪽은 어승생에서 관음사, 물장울을 거쳐 5·16도로 600고지 이상으로 총 133 $km^2$ 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한라산은 1966년 6월 22일 문교부에 의해 해발 700~1,000m 이상과 일부 계곡에 대해 천연보호구역으로 가지정된다. 당시 문교부가 가지정을 서둘러 취한 것은 제주도에서 관광도로 개설계획과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며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지정 후 제주도와 일부에서 개발사업과 상충되니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교부가 강행, 결국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는데 국유림과 민유림을 합쳐 358필지 3,066만 3,600평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1964년 2월에는 박만규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과 제주대학장, 언론인, 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라산 국립공원화를 위한 좌담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도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해발 1,000m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964년 11월에는 박 위원장을 단장으로 56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조사단이 내도해 국립공원 구획선을 결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등고선 1,000m, 북쪽으



로는 900m 정도로 하는데 서쪽 한수악을 시작으로 장악, 적악, 어승생, 능아오름, 개미등, 관음사를 거쳐 동쪽의 횡단도로 동쪽을 따라 남군 일대의 논고악까지로 정했다. 이 중 관음사와 물장을, 어후오름 등을 잇는 중간지점의 표고버섯 재배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70년 국립공원 지정 후 10월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허가지침서가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오는데 허가지침서에 의하면 ① 집단시설구역 예정지역 내의 공작물 신축 및 개축과 증축은 지구의 용도계획 수립 후 허가하되 계획수립 이전에 허가 시는 무보상 철거 등을 조건부로 허가한다 ② 공원지구 내의 수목채취는 산림사업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③ 자연보존지구 내에서 식물 및 곤충의 채집은 종류별로 그 채집량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립공원 내에서 개간 또는 형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971년 2월에는 내무부에서 670만원을 배정해 한라산에 산장 3동을 짓도록 제주도에 지시함에 따라 도는 철쭉밭을 비롯해 왕관릉, 사제비동산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우기 위해 산악회 등 관계자들과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내무부는 100명 수용규모의 A형과 50명 수용규모의 B동, 20명 수용규모의 C동 등으로 정상에서 가까운 곳이나 등산코스에서 1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등반자들이 며칠씩 묵으며 즐길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1971년 10월에는 건설부의 위촉을 받은 '가야기술단'이 20여일에 걸쳐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측량을 벌여 총 3000만평의 대상지구 중 60만평은 집단시설지구로, 20만평은 관광도로 부지로, 나머지는 자연보호지구와 시설확장 제한지구로 설정한 국립공원계획을 설정하기도 했다.



〈그림3-11〉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만수위

자료 : 연구자 촬영. 1999년 7월 한 달간에 걸쳐 한라산에 26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만수위를 기록했을 때의 모습이다. 보통의 경우 백록담 분화구는 소량의 물만 차 있다.

한편 1971년 9월 어리목 광장에 580만원을 투입해 신축한 2층 스라브건물의 산장이 완공 되는데 연건평 60평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1km 떨어진 등산로에도 15평 규모의 대피소가 완공돼 이로써 한라산에는 산장 1동과 대피소 12개소가 마련된다.

1973년 1월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준공되고 같은 해 9월 1일 제주도 조례에 의해 관리 사무소가 개소한다. 한라산 중턱 견월악에 세워진 이 사무소는 40평 단층 스라브건물로 사무실과 휴게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당시 관리사무소 직제는 사무관 급의 소장과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됐다.

1974년 4월부터는 건설부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징수되는데 어른 50원, 학생 및 군경 30원, 어린이 20원, 단체는 10원으로 책정됐다. 도에서는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어승생, 영실 등 5개소에 요금 징수를 위한 징수원을 과전했다.

1974년 국립공원 등산로와 대피소 시설사업을 펼쳤다. 9,7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성판악-백록담 9.6km를 비롯해 어승생-백록담 6.1km, 관음사-백록담 9.3km, 영실-백록담 6.8km 등 등산로 정비에 7,100만원이 투입되고 용진각과 윗세오름, 백록담에 각각 1동씩 대피소를, 영실 지구에는 관리사무소 1동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975년 2월에는 도순천 상류지역과 시오름 일대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979년 12에는 중상기상대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981년까지 1900고지 일대에 설치하려던 기상레이더가 도내 자연보호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1987년 7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이양되지만 한라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리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제주도가 관리하게 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한라산과 경주가 있다.

1995년에는 관음사지구 야영장이 개장했고 2001년에는 제주도훈령에 의해 한라산연구소가 개소하고 2003년 제주도규칙으로 한라산연구소연구실이 신설됐다. 한편 2005년에는 윗세오름대피소에 광케이블이 연결되며 인터넷 사용도 가능해질 정도로 현대화됐다.

한편 이 기간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조사로는 1974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1994년 '한국의 영산 한라산', 2002년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이 있고 이후는 한라산연구소에 의해 매년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이밖에 정밀조사로는 1992년 한라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설계를 시작으로 1995년 한라산국

립공원 장구목 훼손지 복구공사설계 및 관음사 등산로 복구공사설계, 1996년 한라산정상보호 계획, 98년 국립공원 내 우량소나무 보호대책, 2000년 한라산 보호 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식도설치 타당성 연구,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 계획수립, 2001년 한라산백록담 담수화 및 분화구내 복구방안, 2002년 한라산아고산대 보호 관리방안, 2005년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 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등이 있다.



〈그림3-12〉한라산국립공원 성관악대피소와 탐방객

자료 : 연구자 촬영. 자연휴식년제로 인해 백록담에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성관악과 관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백록담을 찾는 탐방객들은 성관악코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한라산 동·식물에 대한 종합조사의 부재를 비롯해 상시조사체계 미흡, 조사기간이 단기성, 정밀조사의 부재 및 조사방법의 단순성, 조사 자료의 관리미흡 및 정보체계 활용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강정호, 2006: 85-89).

## 2)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2년 12월 16일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JIBR,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3년 5월 17일에는 제주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명숙 환경부 장관, 스티븐 힐 유네스코 동북아시아지역 사무소장과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내 환경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에서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림3-13〉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자료 : 연구자 촬영.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이 2003년 5월 17일 한라산 관음사야영장에서 열려 스티븐 힐 유네스코 동북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이 인증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1996)에 의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 해안 또는 해양 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이라 정의되고 있다. 이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아전략(1996)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은 세 가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첫째 유전자 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을 보호하는 보전기능(conservation),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발전기능(development), 셋째 시범사업, 환경교육 및 훈련, 지역적, 국가적, 전 지구적 차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능(logistic support)이다(심숙경, 2004).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과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싯섬 등의 핵심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일부구간 등의 완충지역, 중산간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이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발 200-600m 지역,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을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계한 해양 등의 전이지역으로 구성된다(양병이, 2004).

〈표3-10〉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육 상	해 양	하 천
합 계	83,094	80,674	2,323	97

핵심지역	15,158	15,029	32	97
완충지역	14,601	13,730	871	-
전이지역	53,335	51,915	1,420	-

자료: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현장방문 안내서(2005. 6)

### 3) 관광자원

한라산은 예로부터 영주산이라 하여 봉래산(금강산), 방장산(지리산)과 더불어 3대 영산(靈山)의 하나로 신성시돼 왔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에서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우리들의 어머니 산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하다.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한라산은 물의 여느 산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산정호수인 백록담(白鹿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사라오름과 성널오름, 서쪽으로는 윗세오름과 불래오름, 남쪽으로는 방아오름, 북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 등 오름들이 늘어서있다. 그리고 이 오름들 사이로 크고 작은 오름과 계곡들이 해양까지 뻗어 나가 제주도라는 섬을 이룬다. 정상에서 해발 600고지까지는 울울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아래로는 오름과 초원이 해안까지 이어진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들 한다.



〈그림3-14〉하늘에서 본 한라산

자료 : 연구자 촬영. 앞에 보이는 곳이 백록담 북서쪽에 위치한 장구목이다.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은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산정화구호이다. 화구륜의 능선둘레는 1.7km, 그 넓이가 21ha(6만3천평)가 조금 넘는다. 동서측 약 700m, 남북측 약 500m인 타원형 구조인데 지난 199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화구 바닥면의 표고가 1839m 로 관측돼 화구호의 깊이가



111m에 달한다.

또한 한라산은 오름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한라산 사면에는 368개의 기생화산(오름)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라는 조그만 화산섬의 면적을 감안할 때 오름 군락으로서 가히 세계제일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오름들은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정점으로 하여 1백여 차례 이상의 화산활동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이중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는 46개의 오름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해발 1000-1500m에 분포하고 있다. 그 면적은 14.7km<sup>2</sup>로 국립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수많은 오름들 중 특히 산정화구호를 가지고 있는 오름은 또 다른 신비함을 보여 준다. 한라산에 모두 9개의 산정화구호가 있는데 국립공원구역에는 물장울을 비롯하여 사라오름 소백록담 동수악 어승생악 등 5개소이다.

한편 제주에 강은 없지만 수많은 하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은 깊게 마련인데 한라산에 오르다 보면 좌우로 수많은 계곡들이 보인다. 평상시에는 바닥을 드러낸 골짜기에 불과하지만 비가 내릴 때면 이곳에서 모여진 물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며 하천을 통해 바다로 향한다. 제주섬의 중심점이라 할 수 있는 백록담을 정점으로 하여 60여개의 하천이 사방으로 뻗어 내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시작되는 하천만도 20여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서귀포 방면으로 향하는 남사면의 하천들은 백록담에서의 거리가 짧은 관계로 하류에서는 깊이 30-40여m에 달하는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쪽인 제주시쪽 하천들은 하류에서 하폭이 20-30m에 달하나 계곡의 깊이는 3-5m에 불과하다. 남사면의 하천들 중 천지연(연외천) 천제연 안덕계곡 등에는 여러 군데의 경사급변점이 나타나고 조면암의 주상절리와 폭포가 발달해 일대 장관을 이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북쪽에 비해 남사면이 용기의 정도가 크고 강수량도 많아 활발한 하각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남사면의 하상은 조면암 또는 조면암질현무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한라산의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북사면의 경우 한천 외도천 병문천 등이 있고 남사면에는 신례천 연외천 도순천등이 동쪽으로는 천미천 수악계곡 서중천 서쪽으로는 안덕계곡 등이 있다.

한라산을 식물의 보고(寶庫)하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4000여종의 식물 중 그 절반에 가까운 1800여종이 한라산에 있으니 그렇게 불린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지리산이 1300종과 설악산 1000종임을 감안하면 한라산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자라는지 쉽게 이해가 간다. 한라산에는 단순히 많은 식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열대의 식물에서부터 한대의 식물까지 수직분포를 한눈에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열대 식물의 북방한계, 그리

고 한대식물의 남방한계지역으로서 식물분포상을 관찰하는데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흔히들 산이 보여주는 생태계의 고유성은 그 산이 다른 산에 비해 특징적인 식물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라산 식물상의 중요성을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체 400여종 중에서 한라산이 75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리산 46종, 백두산 42종, 울릉도 36종, 금강산 34종, 설악산 23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식물들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희귀식물분포 실태를 보면 먼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중 절반가량이 제주도에서 자란다.

#### 4) 관광자원개발현황

2004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에 의하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는 총 길이는 42.8km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등산객의 이용이 가능한 등산로는 어리목~윗세오름구간 4.7km, 영실~윗세오름 3.7km, 성판악~정상 9.6km, 관음사~정상 8.7km, 어리목~어승생 1.3km 등 총 5개소에 28.0km이며, 자연휴식년제구간으로 지정되어 등산객이 이용할 수 없는 등산로는 윗세오름~서북벽정상 1.3km, 윗세오름~남벽정상 2.8km, 돈내코~정상 9.4km, 백록담순환로 1.3km 등 총 4개소에 14.8km이다(강정호, 2006).

어리목코스는 지난 1974년 이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로 탐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코스이다. 어리목코스는 제주시에서 1100도로를 이용하여 어리목 입구에 도착한 후 동쪽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어리목광장이 출발점이다. 어리목광장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본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매점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을 출발하여 해발 1,700m에 위치한 윗세오름휴게소에 이르는 4.7km의 등산로가 어리목코스에 해당되며, 등산에는 일반적으로 대략 편도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영실코스는 한라산의 서남쪽을 오르는 코스로 영실휴게소에서 윗세오름대피소에 이르는 3.7km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가장 짧은 등산로이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실기암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성판악코스는 한라산을 동쪽에서 오르는 코스로 경사가 완만한 반면 9.6km로 거리가 가장 길다. 등반 소요 시간은 편도 4시간 30분이다. 최근에는 등산로가 연중 정상 등반을 허용되면서 등반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성판악코스의 출발지점인 해발 750m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성판악지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황단도로인 5·16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3-15〉한라산 어리목코스의 탐방객들

자료 : 연구자 촬영. 한라산의 경우 지정된 코스 이외로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관음사코스는 한라산을 북쪽에서 오르는 코스로 기록에 따르면 1841년 이원조 목사가 이곳으로 등반에 나선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이용했던 등산로이다. 관음사야영장(해발 620m)에서 정상까지는 해발고도 차이가 1,313m이며, 등반 시간이 편도 약 5시간으로 가장 길어 지금은 일반 등산객보다 전문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다. 거리는 8.7km이고, 주변에 관음사라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 관음사코스로 불린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유일하게 취사와 야영이 허용된 관음사야영장에서부터 등반이 시작된다. 1995년 개장된 관음사야영장은 총면적 15,200㎡에 1,000명의 야영객을 수용할 수 있다.

한라산의 시설물로는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야영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민간 단독 휴게시설 등이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 4개 등산코스 입구에 4개소와 1,100고지의 1개소 등 모두 5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7,537㎡에 주차대수는 362대인데 어리목이 6,820㎡, 주차가능대수 151대로 가장 크다. 주차장 관리는 모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이중 4개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어리목진입로 입구를 포함한 1,100고지 주차장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한라산국립공원구역내 야영장은 1995년에 조성된 관음사지구 1개소가 유일한데, 관음사코스 등산로입구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총 50,248㎡의 면적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음사지구야영장은 연평균 약 836명의 야영객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용객 또한 여름철



더위를 피해 놀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음사코스를 이용하여 등산하는 등산객이 적어 이용률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관음사지구 야영장의 주요 시설로는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텐트 시설대, 잔디광장 등이 있고 이중 텐트설치대는 야영장 조성 시 기존 산림을 이용하여 나무 그늘에 설치되어 있어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총 4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이중 자연발효화장실 32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세식화장실이다. 수세식화장실은 대부분 1979~1987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 현재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산중의 탐방객의 안전과 휴식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8개소의 대피소가 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일일 등·하산 원칙을 세워 추진하므로써 대피소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하였고, 윗세오름대피소 2동, 진달래대피소 1동, 용진각대피소 1동, 사라악대피소 1동, 탐라계곡대피소 1동<sup>35)</sup>, 평케대피소 1동, 어리목대피소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피소는 철거하였다. 또한 위의 대피소중 윗세오름 통나무 대피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피소도 시설이 노후하여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민간 단독 휴게시설로는 영실과 성판악, 1100고지 등에 모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휴게소는 민자 유치로 인하여 국립공원 지정 초기인 1979년도에 대부분 설치되었으며, 탐방객이 집중하는 탐방로 변에 위치하여 탐방객을 상대로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 5)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사례

### (1) 국회 문화관광포럼

국회문화정책포럼과 풀빛문화연대, 국회 김재운의원실, 제주생태관광 등이 제주의 경쟁력인 역사, 문화, 환경을 활용한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및 체험형생태문화관광의 전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제주생태문화 여행'을 마련했다.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8개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마지막 8 테마의 주제가 '신화와 전설의 산, 한라산'으로 1일차에는 한라산 어리목코스과 영실코스에서의 생태기행, 2일차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인 돈내코 일대에서의 계곡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sup>36)</sup>

35) 2007년 태풍 나리때의 폭우로 유실돼 현재는 없는 상태다.

36) 제주생태문화여행 홈페이지(<http://www.jejuecotour.com>)

## (2) 참여환경연대<sup>37)</sup>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한라산의 가치를 탐방객들에게 알리고,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을 자연 생태학습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일요일마다 자연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한라생태길라잡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 자연해설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원활동가 모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으로 매년 3월 ~ 11월 일요일 오전에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코스 야영장 및 탐방로 1.3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참여환경연대 생태문화해설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원활동가 모임인 올레가 운영되고 있는데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기행을 매년 4월 - 11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진행한다. 또 초등학교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 진행되는 ‘어린이 오름학교’가 있는데 1999년 ‘제1회 어린이 오름학교’가 시작된 후 만들어진 ‘오름교사모임’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는 ‘어린이 오름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와 사전답사를 병행하고 있다.

## (3) 녹색연합 섬생태포럼<sup>38)</sup>

녹색연합과 HSBC은행이 주최하는 미래세대 섬환경캠프 매년 여름 제주도에서 열린다.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의 섬환경을 체험, 탐사하게 함으로써 푸른 한반도의 주인으로서의 소양을 다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섬환경캠프는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의 중산간 숲 지대인 ‘곶자왈’과 ‘오름’에서의 생태탐사를 통해 원시자연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2005년의 경우 환경캠프는 있지만 섬을 주제로 한 환경캠프는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녹색연합측은 밝히기도 했는데 캠프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지도를 만들어 실천적인 환경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생태관광<sup>39)</sup>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는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국립공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 해설과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 2008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37) 제주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http://www.jejungo.net>)

38) 뉴시스, 2005년7월3일자 기사

39)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28일자 보도자료



한라산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사계절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한라산을 테마별로 탐방할 수 있도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한라산 탐방' 은 어승생오름 코스로 매일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출발한다. '계곡 따라가는 한라산' 프로그램은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구린굴까지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오전 10시)마다 실시되며 '고산습지 동·식물과의 만남' 은 1100고지 고산습지 일대로 매주 화요일(오전 10시)마다 운영된다. 이와는 별도로 4월 말 개관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연환경안내원(8명)들이 배치되어 한라산에 대한 상세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 제주에코여행사의 '제주의 생태와 문화 여행'<sup>40)</sup>

DiscoverKorea Jejueco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종합 여행사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생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www.jejueco.com는 2002년부터 영문 제주도 정보 포털사이트를 오픈하고 외국인들에게 제주도 자연, 교통, 명소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영어 유명한 검색 엔진에서 jeju island 입력하면 저희 사이트가 2-3 순위 안으로 검색이 되고 외국인들 사이에 조회수가 많다. 전국 여행까지 활동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로 www.DiscoverKorea.co.kr라는 사이트도 오픈하고 상호를 DiscoverKorea Jejueco로 변경했다.

2005년 이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INBOUND) 우수여행상품으로 2004년부터 3년 연속 인증을 받기도 했다. 주력하는 지역은 구미주, 동남아 영어권 국가, 호주, 그리고 러시아어권 국가 등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언어 강사들과 회사원들도 주요 타깃이다.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7일 이상의 장기 체류 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외국관광객 직접 모객에 힘쓰는 한편 스쿠버다이빙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6) 한라산 관광자원화의 비판적 접근

##### (1) 적정수용력 산출의 문제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74년도에는 불과 3만3천여

---

40) <http://jejueco.com>

명이 공원을 이용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990년대부터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매년 이용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라산을 찾는 탐방인원을 통계하기 시작한 지난 1974년 이후 32년 동안 탐방객의 등산로별 이용 상황을 보면, 어리목과 영실의 2개 등산로에 79.7%의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성판악과 관음사등산로는 20.3%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리목과 영실등산로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상통제 등의 이용객 분산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는 어리목과 영실등산로의 이용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부 등산로의 이용 집중은 1980년대부터 영실과 어리목등산로 및 그 주변과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 성판악등산로는 정상부까지 크게 파괴되었다(고정균, 2006: 262-265).



〈그림3-16〉한라산국립공원의 탐방객들

자료 : 연구자 촬영. 한라산은 특히 주5일제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이후 탐방객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수는 년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훼손면적과 입장객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복구의 대상이 되는 훼손지는 등산객의 과도한 이용 또는 잘못된 이용행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이용의 규모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라산의 등산로별 생태적 수용능력조사는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되어 본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용규모에서 급격한 생태계 파괴가 시작되는지를 명백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sup>41)</sup>.

41)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제주도, 1985, p362)에 의하면 산악에서 얻을 수 있는 정적과 격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km당 1인이 적정하다고 가정, 회전율을 1일 2회로 했을 경우 한라산의 1일 최대수용량을 266명으로, 연간 6만6500명으로, 환경지표설정(제주도, 1997)에서는 등산로 길이를 기준으로 연간 44만7377명으로 추

수용력(carrying capacity)이란 관광자원의 이용과 이용에 따르는 사회적, 생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시되는 틀(general framework)이다(Hendee, 78: 171-172). 그리고 수용력이란 관광매력성의 질적인 면과 이용자수의 양적인 관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경영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Douglass가 정의하듯이 적절한 수용력이란 관광자원을 적절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가운데 일정기간동안 관광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관광이용량이다(Douglass, 1982: 41; 박석희, 1997: 180). 관광수용력(tourist carrying capacity)의 추정은 미래의 포화문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지역에서 입게 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박석희, 1997: 182)

한라산에서의 수용력이란 '등산로 및 한라산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탐방객의 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0: 28-40). 때문에 수용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등산로의 물리적, 자연적 환경과 주변의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반객의 행태와 자연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라산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2008년 세계자연유산 지구 방문객 유치 목표를 2007년 보다 10.5% 늘어난 263만명(한라산 88만명, 성산일출봉 130만명, 만장굴 45만명)으로 정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 국내외 홍보를 중점 전개하는 등 양적인 팽창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2) 한라산 자연훼손

한라산은 지형·지질적 특성과 등산객의 과도한 집중 이용 등에 의해 등산로 주변과 정상부 일대에 훼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의 훼손면적을 마지막으로 조사하였던 지난 2000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훼손면적은 22.5ha(225,870㎡)로 파악되었다. 이들 훼손면적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어리목등산로 주변 훼손면적이 74,000㎡로 전체면적의 32.8%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훼손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실등산로 주변이 24.4%로 나타나 관음사나 성관악등산로 주변의 각

---

정한바 있으나 수치적용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WTO가 제안한 '적정관광객수 표준'을 근거로 하면 61만6000에 달하나 이를 한라산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고 훼손지복구 기본계획(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1)에서는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연간 252만2500명으로 추정했으나 전체면적에 최대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등산로 수용인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2.1%, 0.6%에 비해 훨씬 높은 훼손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훼손면적의 분포는 탐방객의 한라산 이용행태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라산 등산로 주변의 훼손은 탐방객의 이용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분석으로 유추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0: 28-40).



〈그림3-17〉한라산 훼손지 식생 복구

자료 : 연구자 촬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산악인, 환경단체 회원들이 잇세오름 일대에서 산수국, 김의털 등의 식생복원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상부 일대는 전체 훼손면적의 17.9%인 40,320 $m^2$ 로 단위면적당 훼손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지역이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전체 훼손면적에 대한 최초 조사라 볼 수 있는 지난 1993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라산의 훼손지 면적이 195,300 $m^2$ 로 조사되었는데 7년이 경과한 2000년에는 15.7%인 30,570 $m^2$ 가 증가한 225,870 $m^2$ 로 나타나 훼손이 지속적인 복구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상부 일대의 경우 지난 1986년부터 출입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등산객 통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993년 이후 7년 동안 훼손면적이 142.9%가 증가된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등산객 답압(踏壓)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초기 발생된 훼손지가 집중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복구면적은 전체훼손면적의 58%인 131,240 $m^2$ 로 나타났고, 앞으로 산술적으로 94,630 $m^2$ 를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균, 2006: 253-256).

### (3) 빈약한 홍보자료

2008년 1월 KBS제주방송총국이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9%가 한라산과 일출봉, 용암동굴 등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58%에 달해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라산과 영천, 효돈천,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이 유네스코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Jeju Island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안다 12.4%, 약간 안다 34.5% 등 46.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과반수 도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KBS제주방송총국, 미래리서치, 2008: 41-44).



〈그림3-18〉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42)

자료 : 제주도의 발간자료를 수집, 연구자 촬영.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2년 12월 16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사실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에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유네스코가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보전방안과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는 등한시 한 채 행정 차원에서만 추진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42) 이들 중 맨 왼쪽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이고 가운데는 2005년 8월 열린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현장방문 안내서, 오른쪽은 2003년 5월 17일 열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의 행사안내서이다.



실제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시행된 내용들을 보면 2004년 4월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계획 용역 발주, 2004년 7월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회의 때 가칭 '아·태지역 섬(해양) 생물권보전지역협회' 설립을 공식 제안·권고하고 이 협회의 국제사무국을 제주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5년 8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연방 등 5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원국과 스페인, 팔라우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9차 회의가 '섬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열려 이 자리에서 제주선언이 채택되는데 제주도에서 제안한 '아·태지역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협력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포함할 것이므로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가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사무국은 제주에 설립키로 한다고 결정했었다(강정호, 2006, 123-125).

결국 지정 이후 행정 및 일부 전문 학자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주민홍보에는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치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제주의 오름 정책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오름의 가치와 관련해 2004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에서 PATA재단은 오름의 효과적인 관광자원 이용과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공로패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브로셔(brochure)에 '오름'을 별도 소개하는 등 '오름'이 생태학적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공식 인증했다<sup>43)</sup>.

하지만 이후 오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오름 입구에 안내판, 설치, 일부 오름에 탐방로 개설을 중심으로 한 정비, 그리고 2007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된 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전부이다. 오름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오름의 가치를 살리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활용 미흡과 함께 지적되는 것이 빈약한 홍보물이라 할 수 있다. 생물권 보전지역의

---

43) 아태지역의 환경보호와 문화유산 보전 및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1984년 설립된 PATA재단은 매년 회원국가에서 신청한 재단 지원 요청사업 중 1개 사업만을 채택하여 사업 관리 기관과 지속적인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동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오름'은 최근 세계 관광업계의 공통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관광'에 가장 부합되는 관광 아이템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정식 소개를 통해 세계 관광 전문지 또는 관광 상품 등에 'OREUM'이라는 고유명사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경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당시 발행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책자 및 안내장,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EABRN) 때 발행한 현장방문안내서 등 4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념식 및 회의 참가자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경우 이보다는 양호하다고는 하나 여전히 홍보물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현재 제주도는 UNESCO 세계자연유산 가이드 북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소책자 1만부를 제작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제주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http://jejuwnh.go.kr>)를 한국어와 영어 2개, 중국어(간체, 번체), 일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외에 기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의 홍보물에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탐방안내를 하고 있지만 단순 소개수준에 그쳐 그 내용이 빈약한 실정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과는 별도로 제주도의 지질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서적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한라산의 경우 93년 현길연, 고길홍이 ‘한라산(대원사)’를 펴내는데 이어 94년 제주도가 ‘한국의 영산 한라산’을, 2003년 강정호가 ‘한라산 오름의 왕국 생태계의 보고’(돌베개), 2006년 제주도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한라산 총서’ 전 11권을 펴낸 것이 고작이다. 이 중에서 제주도가 펴낸 서적들은 비매품 한정판으로 제작돼 일반인들의 경우 구입할 수 없어 그 내용을 보려고 할 경우 도서관 등지에서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오름과 관련된 서적은 그나마 양호한 편으로 김종철의 ‘오름나그네’(높은오름 1995) 전 3권에 이어 강수현의 ‘제주의 오름’(대왕사 1996), 제주도의 ‘제주의 오름’(1997), 서재철의 ‘바람의 고향 오름’(높은오름 1998), 강성현의 ‘자연경관의 조화와 제주오름’(2000), 김승태, 한동호의 ‘오름 길라잡이’(대동출판사 2005)와 ‘제주의 오름 368 I, II’(대동출판사 2008), 오창명의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등이 있다.

지질과 관련해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도 지질여행(2003, 증보판 2006), 강순석의 ‘제주도 해안을 가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4) 등이, 꽃자왈 관련으로는 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의 ‘제주의 허파 꽃자왈’(도서출판 아트21 2004)이, 하천 관련으로는 한라일보의 ‘천미천’(2000), ‘효돈천’(2001), ‘한천’(2003)이, 제주시의제21협회의, 제주시의 ‘산지천의 물과 생태’(2004) 등이, 습지와 관련해서는 좌승훈, 좌용철, 김영학이 ‘제주습지기행 I(2001), II(2003)’,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의 습지’(2001), ‘제주의 해안습지’(2003)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자료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

는 한라산에 대한 자료는 비매품 외에는 구입할 수 있는 책이 단 두 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라산 소개 중 각론에 해당하는 노루나 식물, 철새, 곤충 등에 대한 책자는 거의 대부분이 사진집이거나 도감류에 치우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데 이 또한 1995년 오름나그네 전3권이 나온 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 들어 관련서적의 발간 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함께 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에서 발행한 자료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매품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고 나머지 자료들의 경우도 1쇄 한정판으로 추후 발행되지 않아 절판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발행돼 전국단위로 배포가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관련 자료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넘기는 대신 제작비를 지원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sup>44)</sup>.

#### (4) 빈약한 관광기념품

제주자연관광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빈약한 관광기념품이 있다.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은 지역 1차 산업 원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계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큰 산업임에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조례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관광기념품 생산업체를 제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45)</sup>.

실제로 김형길 제주대학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관광상품 유통업체 223개소(2005년 기준)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80~90%가 중국 등 해외나 타지역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관광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광기념품 콘텐츠 구축, 인증시스템 강화, 유통혁신 시스템, 제주도 관광공예 박물관 건립 등과 함께 고품질 유도를 위해 명품 개발시스템을 구축해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과 지속적 지원·관리의 필요성, 생산 업체들 사이에 특허기술 공유와 신기술 공동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관광기념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형길, 2008).

이와 관련 관광·공예품과 관련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통해 입상한 작품에 대한 상품화가

44) 이와 관련 1993년 제주도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5) 제주의 소리, 2007년 4월 23일 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광기념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2003년 기준 관광기념품 공모분야 중 창작 아이디어 분야의 경우 15개 작품이 입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품화 비율은 고작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활용 미흡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은 크게 자연환경보전과 지역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하여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세계의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자연보전관련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적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또 부존자원과 지역주민의 효과적인 공조방안, 관리체계의 구축 등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 다른 측면인 지역발전측면에서는 제주도의 다양한 생태계와 수려하고 독특한 자연환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지명도의 확보와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양병이, 2004).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후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연구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강구 등을 위해 용도구역별로 주요 자연자산을 다음과 같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현장안내서, 2005).

• 에코가이드 및 지역 환경해설가 등 육성,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등 자연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마을단위 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상품로고(labelling) 및 장소마케팅 등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 조례제정, 관리위원회 재구성, 기존 관련기관과 연구소간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책임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립한다.

•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지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위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향후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범위에 있어서도 제주의 오름과 계곡, 용암동굴, 야생동물도래지, 꽃자왈 등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위원회의 경우도 기능이 운영, 관리사항 자문, 보전 및 연구사업의 촉진, 교육 및 훈련사업의 촉진 등으로 실행기구라기 보다는 자문위주의 기구라는 인상마저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유기,



2004).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983년 처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에 섬 전체가 보전지역으로 확대된 스페인 라 팔마(La Palma)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리기구인 생태보전위원회(콘스르시오)를 행정과 민간 혼합조직으로 설치해 엄격한 관리를 하는 한편 2004년에 지역특산물 상품화 차원에서 생물권 로고를 부착, 경제적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독일의 뢰른(Rohn)지역이 있는데 1991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방문자센터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의 특산물에 로고를 부착, 상품화하고 있는데 로고는 비단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등 다른 이차적인 상품들까지 확대하고 있다(정희성, 2004).



〈그림3-19〉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인 서귀포 범섬46)

자료 : 연구자 촬영. 범섬 너머가 서귀포시 신시가지고 그 왼쪽으로 범환과 강정이 이어진다. 최근 해군에서 군사 기지를 계획하는 곳은 왼쪽 끝부분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도입되는 인간의 이용이 생태계모니터링이나 조사연구 등의 학술적 목적의 것이거나 환경교육 또는 생태관광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활동이어야만 한다(<http://www.unesco.org>). 반면 지역사회는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취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김성일,

4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인근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 최근 해군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 환경 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02). 결국 보전에만 충실한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2007년 등재된 세계자연유산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에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사실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을 감안해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 연계된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평가를 담당했던 IUCN의 평가보고서에도 이 둘을 연계시키라는 권고가 담겨 있다.



## IV.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1. 조사 설계

####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3개 지구 중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문가 그룹으로 한정된 이유는 세계자연유산 자체가 이용의 측면보다는 보전 관리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보전을 전제로 한 이용의 측면에서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가 그룹을 보면 지질, 생태, 관광을 전공한 학자들로서 대학 교수와 제주발전연구원 및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들, 공무원으로는 과거 또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와 연관됐던, 즉 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정책과, 관광정책과, 환경자원연구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의 담당 공무원들, 관광관련업으로 관광협회 종사자와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했던 관광업계 대표, 자연생태해설가는 현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라산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설가들, 그 외 도내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4-1〉 설문 응답 전문가 그룹별 분포

그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학계	13	18.4	18.4	18.4
공무원	20	28.1	28.1	46.5
관광	8	11.3	11.3	57.8
자연생태해설가	14	19.7	19.7	77.5
환경단체	16	22.5	22.5	100
합계	71	100.0	100.0	

한편 설문조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직접 면접방법으로 실시했다.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련해 관리 등을 담은 선행연구를 참조해 구성했다. 먼저 세계유산은 전 세계 인류의 공동재산이므로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세계유산을 활용하면서 보전하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식제고, 보호증진, 관리를 위한 자금 확보, 관리체계 개선, 관광지원 등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일반적인 요소들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유산지역에 대한 완전한 이해, 계획-이행-모니터링-평가의 순환체계, 협력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필요한 자원의 분배, 능력배양, 관리체계가 어떻게 기할 것인가 등이 있다(조도순, 2007).

이와 관련 조도순(2007)은 관리 기구를 조속히 발족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금을 모금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의 관리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재철(2007)은 보전과 이용의 조화라며 세계적 자연을 적정하게 이용하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즉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의 관리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탐방 대책(탐방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자연유산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으로 기존의 관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관리, 여기에 정부지원이 결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동헌(한라일보 2008. 6. 9)은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에 오를 수 있던 배경에는 제주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돼 관리돼 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그런데도 범섬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제주도지사 스스로가 포기 선언을 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도 다시 제기되면서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환경정책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자치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며 세계자연유산이 그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관광상품에 그칠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주의 미래를 주도하는 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어 관광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 각 분야의 중심모티브를 '제주의 청정자연'에 맞춘다면 급변하는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도 제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영웅(2007)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인근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유지한 사실은 환경보전의 의지와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관리계획도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한 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유지매입,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방안, 주민의 소득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창집(2007)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제주문화예술인의 역할에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보존을 위한 역할, 예술창작을 통한 유산을 빛내는 일, 관광과의 연계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최돈원(2007)은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즉, 등재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할 것과 그곳에 농사를 짓거나 비료를 퍼부어 땅속의 동굴이 손상되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위원회와 예산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호관리의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우선 거론하고 있다. 특히 2007-2010년까지의 학술조사, 유산지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주민의 참여와 관람객 관리, 유산지구의 홍보, 그리고 방문객센터와 세계유산센터 같은 교육시설의 확충 등 신청서에 제시한 실행계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8년을 세계자연유산 선진도약 원년으로 선포해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8년 1월부터 연말까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의 전문가 그룹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 따른 주요 과업내용은 IUCN 권고사항 이행, 체계적인 보존, 합리적 활용계획, 관리체제 및 정보 교육 협력 분야, 연도별 투자 및 자원조달 분야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분류해 분야별 실천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용역과 관련 2008년 5월 14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안내소에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보존계획과 관련 유산지구별로는 한라산의 경우, 각 탐방로의 특성에 따른 주제 발굴 및 방문객 분산, 미국국립공원 운영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산일출봉은 관람객의 밀집으로 수용범위를 초과, 친환경적 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활용계획으로는 핵심·특화·연계사업으로 분류, 캐릭터 선정 등 모두 60여개 사업들이 쏟아졌는데 등반코스별 차별화된 테마 발굴, 겨울 오름 트레킹대회, 거문오름-만장굴-바다로 이어지는 관광루트 개발, 제주용암동굴 영상관 조성 등이 관광상품화 계획으로 제시됐고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마을 외곽

으로 이전, 마을 통과보행로를 개설하자는 방안도 나왔다(한라일보, 2008.5.1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의 구성은 보전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나뉘 보전측면으로 관리의 목표, 보호관리 방안을, 활용측면에서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홍보방안,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으로 나뉘 조사했다.

한편 설문문항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그룹인 학계와 공무원, 관광관련 종사자, 자연생태 해설가, 환경단체 회원 등 분야별로 각 2명씩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 설문문항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관리의 목표에는 보전과 활용에 있어서의 목표, 편익과 보전의 적절한 균형, 적정한 환경수준의 유지, 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욕구충족 제공,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 향상, 개발에 있어서 지역문화의 보전, 관광의 지속적 수용능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보호관리 방안에는 방문자 모니터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감시단 구성, 생태관광수칙, 사후 모니터링, 적정 수용력 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시스템 도입,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제주지역만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탈피, 국가지정문화재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 방안, 지역의 NGO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체계적 보호장치를 위한 예산확보방안마련, 과도한 시설물 배제 및 최소화, 민.관.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자연유산재단 구성 등이 거론됐는데 이 중 강화된 관리법안, 생태관광수칙, 사후모니터링, NGO 협조체계구축, 시간과 인원의 제한, 방문객 사전교육 등 7문항을 선택했다.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에는 국제적 수준의 생태교육장 조성,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방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협의체, 방문자 센터 설립, 체험 위주의 체류형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생태관광공원, 전문 학술 프로그램 (지질, 자연생태, 식물 등), 소규모 다양화된 테마체험장 활성화, 자가해설 기법의 안내표지판 설치, 추가적인 탐방로(등산코스) 개설, 생태관광코스개발, 케이블카, 제주지역에서만 한정판매 기념품 개발, 자연유산브랜드를 활용한 특산물 개발, 이미지 상품 개발,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 상품, 입장료를 다시 받고 그 기금을 보존 및 개발 연구비로 활용, 가상적 교육적 측면의 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마을의 전통과 문화, 산업이 결합하는 방안, 지역 특산물과 연계 방안, 지역 문화와의 연계, 지역민들이 생산한 상품에 세계자연유산로고 사용권, 1마을 1특색사업 연계방안, 여행사, 호텔 등 자연유산브랜드 사용기관과의 협정 체결 등이 거론돼 이 중 생태관광공원, 생태관광협의회 구성, 수련원, 최적지 및 포함범위, 생태관광상품개발, 지역주민연계방안 등 11문항을 선정했다.

홍보방안에는 주민 홍보 강화, 리플렛 제작, 유산지역 지도제작, 타 지역 홍보 부스 설치, 사

이버 홍보관 또는 체험관 설치, 홍보 사절단 구성, 캐릭터 개발, 자매결연 도시를 통한 홍보강화, 해외교민을 활용한 홍보강화, 칠팔로 가입 소도시와 자매결연,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지역 TV 이용 광고, 국내외 언론인 및 관광업자 대상 팸투어,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 시스템 필요성 등이 도출돼 이 중 홍보우선순위, 홍보의 주체, 사이버 제주생태체험관, 자가해설식 안내표지판 등 5문항을 선택했다.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에는 인증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전문안내자 양성, 적정 인원 또는 10-20명 팀별 안내원 및 해설사 동행, 해설사 이용시 유료화 방안, 생태관광 전문 여행사의 육성, 해설사 운영시 행정에서 50% 지원, 관광객 50%로 부담하는 방안 필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심사해야할 중요 기준, 생태관광 전문 안내자의 선행조건 등이 거론돼 인증프로그램 및 자연생태해설사 양성 필요성, 자연생태해설사 교육 및 운영 주체 등 4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완성된 설문지의 분류내용은 다음 <표4-2>와 같다.

<표4-2>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수	내 용	척 도
관리의 목표	1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에 있어서의 목표	명목척도
보호관리 방안	7	강화된 관리법안, 생태관광수칙, 사후모니터링, NGO 협조체계구축, 시간과 인원의 제한, 방문객 사전교육	명목/5점 척도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11	생태관광공원, 생태관광협의회 구성, 수련원, 최적지 및 포함범위, 생태관광상품개발, 지역주민연계방안	명목/5점 척도
홍보 방안	5	홍보우선순위, 홍보의 주체, 사이버 제주생태체험, 관자가해설식 안내표지판	명목/5점 척도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4	인증프로그램 및 자연생태해설사 양성 필요성, 자연생태해설사 교육 및 운영 주체	명목/5점 척도

###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회수된 총 매수는 73매였으나 이 중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무응답 항목이 많은 불량 응답지 등 2매를 제외한 71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코딩 과정을 거쳐 SPSSWIN 12.0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기술적 통계를 활용, 모든 변수의 빈도분석표와 기술통계량을 제공받고자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했다. 이와 관련 '필요하다'를 5점, '어느 정도 필요하다'를 4점, '보통'을 3점, '약간

필요치 않다'를 2점, '필요치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 가운데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선택된 3가지 항목을 측정된 후 3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계 점수를 산출하였다.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1) 관리의 목표

세계자연유산을 어느 시각에서 보고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먼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목표와 관련 응답자의 63%가 적절한 환경 수준의 유지를, 이어 개발에 있어서 지역특성의 보전(21.9%),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 향상(6.8%), 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욕구충족 제공(5.5%), 관광의 지속적 수용능력 확보(2.7%) 등의 순으로 답해 보전을 중심을 둔 관리정책을 주문했다.

〈표4-3〉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목표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①적절한 환경수준의 유지	45	63.3
②관광객 욕구충족 제공	4	5.6
③지역사회 질 향상	5	7.1
④지역특성의 보전	15	21.2
⑤관광 수용능력 확보	2	2.8
계	71	100.0

### 2) 보호관리 방안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내 차원이 아닌 세계적 문화재라는 측면을 감안해,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



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평균점수는 4.37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8조 3항에 의하면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 생태관광수칙의 제정 필요성(4.77), 사후 모니터링(4.96), 지역의 NGO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4.46), 탐방객 분산을 위한 시간제한(4.39), 인원 제한(4.37),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방문객 사전교육(4.34)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4-4〉 보호관리방안

항 목	평균점수(5점)	표준편차
1. 보호법안 강화 필요성	4.37	1.00
2. 생태관광수칙의 제정	4.77	0.42
3. 사후 모니터링	4.96	0.21
4. 지역의 NGO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4.46	0.77
5. 이용 시간을 제한	4.39	0.80
6. 탐방 인원을 제한	4.37	0.85
7. 방문객 사전 교육	4.34	0.84

### 3)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생태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해 생태관광 상품이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3.77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왔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4.63점으로 매우 높게 느끼고 있었다.

또 민.관.학 합동의 생태관광협의회 구성(4.51), 제주생태관광공원 조성(4.14) 등도 높게 나온 반면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 시설 건립(3.67), 추가적인 탐방로(등산코스) 개설(3.20)에 대해서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지역사회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참여 연계방안(4.62),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의 연계(4.83) 등도 매우 높게 조사됐다.

〈표4-5〉 생태관광 상품 개발방안

항 목	평균점수(5점)	표준편차
1. 생태관광개발의 자연환경 파괴방지 효과	3.77	1.00
2. 생태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	4.63	0.62
3. 민.관.학 합동의 생태관광협의회 구성	4.51	0.79
4. 제주생태관광공원 조성	4.14	0.98
5.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	3.67	1.24
6. 추가적인 탐방로(등산코스) 개설	3.20	1.40
7.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마련	4.62	0.64
8.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의 연계 필요성	4.83	0.42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적지에 대해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47.9%), 성산일출봉 응회구(18.35%), 만장굴(15.5%), 용천동굴(7.0%), 벵뒤굴(5.6%), 당처물동굴(5.6%) 등의 순으로 답했고 기타 의견으로 검은오름용암동굴계와 연계된 지역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용암동굴을 하나로 묶어 검은오름용암동굴계로 볼 경우 제주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의 면적과도 비례하는 것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이어 검은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 등의 순이라 할 수 있다.

〈표4-6〉 생태관광 상품 개발 최적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한라산천연보호구역	34	47.9
② 만장굴	11	15.5
③ 당처물동굴	4	5.6
④ 용천동굴	5	7.0
⑤ 김녕굴	0	0.0
⑥ 벵뒤굴	4	5.6

⑦ 성산일출봉 응회구	13	18.3
계	71	100.0

이와 함께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에서는 한라산(52.1%), 오름(19.7%), 꽃자왈(11.3%) 등의 순으로 답했는데 이를 3순위까지 감안해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라산(31.5%), 오름(23.2%), 동굴(16.1%), 꽃자왈(1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표4-7〉 생태관광 우선 포함 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총점	점유율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한라산	37	52.1	10	14.1	2	2.9	133	31.5
② 오름	14	19.7	22	31.4	12	17.1	98	23.2
③ 하천 및 해안선	4	5.6	4	5.7	6	8.6	26	6.1
④ 동식물			4	5.7	4	5.7	12	2.8
⑤ 동굴	8	11.3	13	18.6	18	25.7	68	16.1
⑥ 꽃자왈	7	9.9	16	22.9	13	18.6	66	15.6
⑦ 제주신화	1	1.4	1	1.4	14	20.0	19	4.5
⑧ 기타					1	1.4	1	0.2
합계	71	100.0	70	100.0	70	100.0	423	100.0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과 관련해 어떠한 방향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박 등 농촌관광과 연계(48.5%), 지역해설가(20.6%), 모니터링 요원 양성(19.1%), 청정 지역특산물 판매점 운영(1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4-8〉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① 지역해설가	14	20.6
② 청정 지역특산물 판매점 운영	8	11.8
③ 민박 등 농촌관광과 연계	33	48.5
④ 모니터링 요원 양성	13	19.1
계	68	100.0

#### 4) 홍보방안

홍보방안과 관련, 현재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07점으로 평균 수준이었고 3D 영상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제주생태체험관(4.59), 자연유산해설사의 도움 없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4.24) 등은 4점을 넘기며 그 필요성에 대해 높게 느끼고 있었다.

〈표4-9〉 홍보방안

항 목	평균점수(5점)	표준편차
1.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	3.07	0.84
2. 3D 영상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제주생태체험관의 필요성	4.59	0.67
3. 자연생태해설사의 도움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4.24	1.03

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홍보 인쇄물 제작이 43.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사이버체험관 설치(22.5%), 유산지역 지도 제작(21.1%) 등의 순으로 답했는데 1, 2, 3순위에 대한 빈도총점을 분석한 결과 홍보 인쇄물 제작(30.5%), 사이버체험관 설치(26.7%), 유산지역 지도 제작(21.8%) 등의 순으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밖에 기타 항목으로 홍보효과를 위한 트래킹 체험단 운영, 국내외 언론인 및 관광업자 대상 팸투어, 해외교민 활용방안 모색, 다른 나라 유산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표4-10〉 홍보방법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총점	점유율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홍보 인쇄물 제작	31	43.7	14	19.7	8	11.8	129	30.5
② 유산지역 지도제작	15	21.1	17	23.9	13	19.1	92	21.8
③ 타 지역 홍보 부스 설치	3	4	10	14.1	13	19.1	42	9.9
④ 사이버 체험관 설치	16	22.5	22	31.0	21	30.9	113	26.7
⑤ 홍보 사절단 구성	2	2.8	5	7.0	8	11.8	24	5.7
⑥ 기타	4	5.6	3	4.2	5	7.4	23	5.4
합계	71	100.0	71	100.0	68	100.0	423	100.0

홍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나타난 홍보 인쇄물 제작, 즉 도서와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민간에 위탁 또는 지원(56.3%), 전문연구기관(21.1%) 등으로 답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시 구매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행정에서 제작한 도서와 기념품 등이 비매품으로 특정 계층에만 공급된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4-11〉 도서,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행정	2	2.8
② 관광협회	6	8.5
③ 민간인	3	4.2
④ 전문연구기관	15	21.1
⑤ 행정에서 민간에 위탁 또는 지원	40	56.3
⑥ 기타	5	7.0
계	71	100.0

5)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인증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4.52), 친환경 관광 인증 자격증을 갖춘 자연생태해설사의 양성 상주(4.69)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표4-12〉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

항 목	평균점수(5점)	표준편차
1. 인증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4.52	0.56
2. 전문 자연생태해설사의 양성, 상주	4.69	0.52

한편 전문 자연생태해설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관광 인증 자격증이 주어진 전문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경우 그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NGO 위탁(36.6%), 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31.0%), 학계에 위탁(8.5%), 제주도관광협회(4.2%),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1.4%) 등의 순으로 NGO에 위탁하거나 제주도 세계유산 관리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도 18.3%나 차지했는데 설립 추진중인 제주관광공사, 민.관.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자연유산재단 구성, 세계유산관리본부와 특정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세계자연유산 생태해설사 학과' 개설, 행정은 지원만 하고 학계, 박물관, NGO 연계, NGO는 해설을, 제주관광공사는 운영을 맡자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표4-13〉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 기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①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	22	31.0
②제주도관광협회	3	4.2
③학계에 위탁	6	8.5
④NGO 위탁	26	36.6
⑤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	1.4
⑥기타	13	18.3
계	71	100.0

자연생태해설사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민간 기업, 영리단체, 시민단체, 학회, 협회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민단체 (21.9%), 학회나 협회(15.1%), 행정(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14〉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주체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행정	10	14.1
② 민간 기업이나 영리단체	2	2.8
③ 시민단체	16	22.5
④ 학회나 협회	11	15.5
⑤ 위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	29	40.8
⑥ 기타	3	4.2
계	71	100.0

#### 6) 전문가 분야별 인식 차이

설문문항 응답과 관련 전문가 분야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야는 정책자문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학계와 공무원, 관광관련 종사자 등을 정책위주 집단으로, 자연생태해설가와 환경단체 회원 등을 환경위주 집단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 자원화와 관련 필요성 여부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에서는 대부분 차이가 없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보호법안 필요성, 완충지역 인근에 서귀포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 건립, 생태관광상품 개발 필요성 등 3개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정책위주 집단은 평균점수가 4.167점인데 반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4.467점으로 유의확률  $P=0.017$ 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경위주 집단의 경우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보호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문제가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 건립 필요성의 경우는 정책위주 집단은 평균 점수가 3.925점인데 반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3.333점으로 유의확률  $P=0.047$ 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서귀포 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 봉개명도암청소년수련원, 금능청소년수련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서귀포 돈내코학생수련원 등이 있음에도 이 들 중 상당수는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는 등 관리운영에 제반 문제점이 나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보호지역 인근에 시설물이 들어서는 자체에 대해 그 활용측면에서 의혹을 갖고 보는 시각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생태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위주 집단은 평균점수가 4.584점인데 반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4.333점으로 유의확률  $P=0.001$ 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전이나 활용이냐는 측면에서 관광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 효과를 보느냐의 차이로 정책위주 집단은 활용을, 환경위주 집단은 보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설해 볼 수 있다.

〈표4-15〉그룹별 생태관광자원화 필요성 교차분석

항 목	그룹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유의도
1.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위주	41	4.167	1.195	0.017
	환경위주	30	4.467	0.547	
2.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예를 들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의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위주	40	3.925	1.118	0.047
	환경위주	30	3.333	1.322	
3.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여기십니까.	정책위주	41	4.854	0.358	0.001
	환경위주	30	4.333	0.758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적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정책위주 집단에서 9.8%에 불과한 성산일출봉응회구가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30.0%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산일출봉의 경우 주변에 철새도래지인 성산포양어장과 하도리 습지가 있고 또 해안사구, 섭지코지 등이 위치해 생태관광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4-16〉그룹별 생태관광 최적지 교차분석

구 분	1.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천연 보호구역	만장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뱅뒤굴	성산일출봉음 회구	전 체
정책위주	51.2%	19.5%	4.9%	9.8%	4.9%	9.8%	100.0%
환경위주	43.3%	10.0%	6.7%	3.3%	6.7%	30.0%	100.0%
전 체	47.9%	15.5%	5.6%	7.0%	5.6%	18.3%	100.0%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관련해서는 1순위 응답에서 정책위주 집단은 한라산이 63.4%를 차지한 반면, 환경위주 집단에는 36.7%에 불과했고 이와는 달리 오름과 동굴, 꽃자왈이 각각 16.7%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기존 등산로 위주의 탐방에 그치는 반면 오름과 동굴, 꽃자왈의 경우 제주의 다양한 지질 및 자연생태계를 접할 수 있고 획일적이지 않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주의 경우 한라산만이 아닌 제주 전 지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생태관광 적지라는 인식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표4-17〉그룹별 생태관광 우선포함순위 교차분석

구 분	1.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1순위 응답자의 경우)						
	한라산	오름	하천 및 해안선	동굴	꽃자왈	제주신화	전 체
정책위주	63.4%	22.0%	2.4%	7.3%	4.9%		100.0%
환경위주	36.7%	16.7%	10.0%	16.7%	16.7%	3.3%	100.0%
전 체	52.1%	19.7%	5.6%	11.3%	9.9%	1.4%	100.0%

지역주민의 참여 연계방안과 관련해서는 양 집단 모두 농촌관광과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한 입장을 보였으나 그 다음 순위에서 정책위주 집단은 지역해설가 양성과 판매점 운영을 꼽은 반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모니터링요원 양성을 꼽

고 있다. 이는 지역해설가의 경우 일정부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에 의해 양성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높게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4-18〉그룹별 지역주민 참여연계방안 교차분석

구 분	1.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으로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해설가	판매점 운영	농촌관광 연계	모니터링요원 양성	전 체
정책위주	23.7%	15.8%	47.4%	13.2%	100.0%
환경위주	16.7%	6.7%	50.0%	26.7%	100.0%
전 체	20.6%	11.8%	48.5%	19.1%	100.0%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도서 및 기념품의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책위주 집단에서는 65.9%를 차지한 반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43.3%에 그쳤다. 대신에 전문연구기관이 26.7%, 기타 13.3%, 민간 10.0% 등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환경위주 집단의 경우 도서제작에 있어 전문지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4-19〉그룹별 홍보도서 기념품 개발주체 교차분석

구 분	1.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도서,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로 누가 적정하다고 여기십니까.						
	행 정	관광협회	민 간	전문연구 기관	민간위탁 또는 지원	기 타	전 체
정책위주	2.4%	12.2%		17.1%	65.9%	2.4%	100.0%
환경위주	3.3%	3.3%	10.0%	26.7%	43.3%	13.3%	100.0%
전 체	2.8%	8.5%	4.2%	21.1%	56.3%	7.0%	100.0%

친환경 관광인증 자격증이 주어진 전문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경우 그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책위주 집단의 경우 세계유산관리본부 31.7%, 기타 29.3% NGO위탁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NGO위탁 56.7%, 세계유산관리본부

30.0% 등의 순으로 답해 유의확률 P=0.002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경위주 단체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꽃자왈사람들 등에서 꾸준히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정책위주 집단에서는 29.3%를 차지하는 기타항목에서 세계유산관리본부와 관광협회, 학계, NGO, 박물관 등의 기관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4-20〉그룹별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기관 교차분석

구 분	1. 친환경 관광 인증 자격증이 주어진 전문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경우 그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십니까.						
	세계유산 관리본부	관광협회	학계 위탁	NGO 위탁	민속자연사박 물관	기 타	전 체
정책위주	31.7%	7.3%	9.8%	22.0%		29.3%	100.0%
환경위주	30.0%		6.7%	56.7%	3.3%	3.3%	100.0%
전 체	31.0%	4.2%	8.5%	36.6%	1.4%	18.3%	100.0%

자연생태해설사의 운영주체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집단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행정과 민간기업 및 영리단체, 시민단체, 학회나 협회 등 여러 기관단체가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양 집단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위주 집단은 행정과 학회 및 협회가 각각 22.0%를 차지한 반면 환경위주 집단에서는 시민단체가 30.0%를 차지한데 이어 행정과 학회 및 협회는 각각 3.3%, 6.7%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관광의 특성상 현장에서 진행되는 자연생태해설사를 행정이나 학회, 협회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내재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4-21〉그룹별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주체 교차분석

구 분	1. 자연생태해설사의 운영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 정	민간기업, 영리단체	시민단체	학회, 협회	위 주체들 협력운영	기 타	전 체
정책위주	22.0%	2.4%	17.1%	22.0%	36.6%	10.0%	100.0%
환경위주	3.3%	3.3%	30.0%	6.7%	46.7%	10.0%	100.0%
전 체	14.1%	2.8%	22.5%	15.5%	40.8%	4.2%	100.0%

## V. 제주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 1.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은 보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활용할 대상이 바로 잘 보전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그 등재기준에 부합한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규모 순상화산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들은 그 길이나 양적 규모, 복잡한 통로 구조, 동굴 내부의 용암 지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장관을 이루는 2차 생성물, 접근 용이성, 그리고 이들의 과학 및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전하는 것에서부터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때문에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적절한 환경수준의 유지와 함께 제주자연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 차원이 아닌 세계적 문화재라는 측면을 감안, 보다 강화된 보호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의 제정 또는 기존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의 응답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관리와 관련,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점은 경작 활동이 지하환경에 미치는 잠재영향을 방지하는 것과 유산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탐방객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IUCN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수칙의 제정과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지역의 NGO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 마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주생태관광수칙’의 경우 일본 야쿠시마 컨트리코드의 사례에서처럼 생태관광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제주가 생태관광개발의 선진지역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실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각 계약국은 6년마다 자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보전 상태와 평가 정보를 포함한 세계유산협약 이



행에 관한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를 제출해야 하고 또 세계유산에 대한 위협이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선적으로 환경적 수용력을 초과할 경우 자연자원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와 관광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간적(단위면적), 심리적(쾌적감) 범위에 대한 탐방객 인원을 감안하는 수용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탐방객 분산방안으로 이용 시간과 탐방 인원의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형·지질적 특성과 등산객의 과도한 집중 이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등산로 주변과 정상부 일대 훼손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며 자연휴식년제 시행과 함께 훼손지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수행할 (가칭)‘생태체험 관광자원화 협의회’ 등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자연해설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산림 인스트럭터 제도를 마련하여 생태해설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남에서는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생태체험 관광자원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 2. 생태관광 기반시설

자연생태관광은 환경해설 및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따라 대상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유발하므로 방문자 기반시설 중 안내시설은 매우 핵심적 시설이다(이종규, 박종구, 조용현, 2004: 188).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체험할 수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개관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한라산 어리목에 들어선 한라산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정보 공간으로 기획 전시실과 영상관, 제 1~3 전시실, 자료실, 창작교실 및 야외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탐방안내소의 자연해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강해 향후 성판악, 영실, 관음사

등 다른 등산로 입구에도 소규모 탐방안내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탐방안내소가 주로 운영 및 관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며 탐방객 정보 제공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새롭게 문을 연 한라산 탐방안내소의 경우도 전시공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체험과 정보제공의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외 전시 및 안내센터의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의 자연생태 안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 계획과 관련, IUCN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IUCN이 제시한 재검토 이유로는 제주시 외곽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에 이미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징을 전시 설명하는 특별전시관이 들어서 있고 세계 최고의 운영 수준을 보이는 돌문화공원이 아직 미완공 상태이며 후보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전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체험할 수 있는 제주생태관광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전시구성에 대한 재평가와 재편작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체험과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생태 안내센터의 경우도 운영시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가 학습 프로그램으로 PDA나 MP3 플레이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탐방로 등에 자연생태해설사의 도움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 3D 영상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제주생태체험관의 경우도 소개 위주의 홍보차원을 탈피한 가상학습과 가상체험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생태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 상품은 장소와 상품에 의해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태관광 내에서 공급되는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고 체험하느냐에 따른 경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 예를 들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 학생 및 청소년 단체의 수련장 또는 유스호스텔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연생태해설사의 배치 등을 통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사회 연계방안

제주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지역주민과 개발업자간 마

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민간의 분열양상마저 나타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과 행정의 통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조직, 즉 가칭 '제주생태관광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생태관광협의회의 경우 해당지역에 관계된 지역주민, 지역 내 기관단체, 비정부단체,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체로 구성하면 이해 관계자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각 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수의 관광객 결정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증진 방안강구, 문제 발생시 의견수렴 및 조정, 생태관광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생태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여부다. 벨리즈, 호주 등의 사례는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생태관광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관광 인식 및 경영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 개발과정에서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관광에 있어서의 자원은 바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이라는 인식과 그것이 곧 이익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문제는 방법인데 독일의 뢰른(Rohn)지역의 경우 1991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방문자센터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등 다른 이차적인 상품들까지 로고를 부착, 상품화한 사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설문에서 나타난 민박 등 농촌관광과 연계, 지역해설가, 모니터링 요원 양성, 청정 지역특산물 판매점 운영 등과 함께 소수 의견으로 제안된 1마을 1특색사업 추진,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역민들이 생산한 상품에 세계자연유산로고 사용권 및 행정재정적 지원, 보존을 전제로 마을단위에서 생태적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sup>47)</sup> 운동 차원에서 각 마을의 전통과 문화, 산업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우처럼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제주지

---

47) 치따슬로 국제 연맹의 슬로시티운동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으나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1999년 10월 15일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에 그레베 인 키안티, 브라, 포시타노 등 슬로푸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 도시의 시장이 모여 슬로시티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전남 4곳을 비롯해 이탈리아 55곳, 영국·스페인 8곳, 독일 5곳, 폴란드·포르투갈 4곳, 노르웨이·벨기에 3곳, 오스트레일리아 2곳, 뉴질랜드 1곳 등 총 11개국 97개 도시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역의 96.4%를 차지하는 1차와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차 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3차 산업을 만나야 한다. 일본 홋카이도 후라노에서는 허브농장으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프랑스의 와이너리와 와인은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생산하는 농업에서 보여주는 농업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농어촌은 있는 그대로 훌륭한 체험상품이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도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 관광은 제주농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강신겸, 2006).

#### 4. 홍보방안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홍보와 관련 대부분의 2008년 1월 KBS제주방송총국이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9%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58%에 달해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점수가 3.07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 크다. 단순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알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의미, 가치 등을 알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 매체와 관련, 홍보 인쇄물 제작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사이버체험관 설치, 유산지역 지도 제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 인쇄물 제작, 즉 도서와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민간에 위탁 또는 지원,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답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행정에서 제작한 도서와 기념품 등이 비매품으로 특정 계층에만 공급된 문제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련 서적을 한정판으로 발간한 후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을 소개하는 향토서적 발행 출판사 또는 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도서와 기념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위주의 홍보차원을 탈피한 가상학습과 가상체험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생태 관광객들의 경우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행동여부를 결정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 상품은 장소와 상품에 의해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태관광 내에서 공급되는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고 체험하느냐에 따른 경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5. 인증프로그램 개발방안

생태관광에서 해설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탐방안내소와 함께 자연생태해설사의 존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라산에는 8명의 자연생태해설사가 배치돼 안내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지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생태관광 전문 업체들이 환경단체 등에서 배출한 해설사가 중심이 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신청서에서 유산지구를 관리하는 정규직원의 수를 2010년까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50명, 거문오름용암동굴계 30명, 성산일출봉 12명 등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각 지구마다 유산해설사, 통역가이드, 지킴이 등이 활동하며 지역민의 유산 보호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와 탐방객 및 지역민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그 인원을 상당수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원칙에 부합되는 관광에 대해 생태관광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인 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통해 관광의 수요자인 방문객은 인증제도의 정보를 통해 품질이 보장된 관광지를 개인의 여행 동기에 따라 생태관광지를 선택하고 관광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한편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지의 홍보효과 및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통해 환경보전이라는 생태관광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인증 제도를 실시할 경우 호주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생태해설사의 경우 교육은 NGO 위탁, 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 등으로 NGO에 위

탁하거나 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가 직접 운영하고, 자연생태해설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행정과 민간 기업, 영리단체, 시민단체, 학회, 협회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설립추진중인 제주관광공사, 민.관.시민단체 등이 함께 구성된 자연유산재단 구성, 세계유산관리본부와 특정대학이 MOU를 체결해 '세계자연유산 생태해설사 학과' 개설, 행정은 지원하고 학계, 박물관, NGO 연계, NGO는 해설을, 제주관광공사는 운영을 맡자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VI. 결 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질학적, 지형학적, 자연지리학적 특징을 포함한 지구 역사상의 중요성이 인정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때문에 제주의 자연은 우리나라 차원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재로 그 위상을 높이게 된 만큼 그에 걸 맞는 보호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전을 전제로 관광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관광매력을 증진하는, 즉 관광과 환경이 조화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생태관광의 도입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세계자연유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과 생태관광의 개념, 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 자원화 사례, 세계자연유산과 제주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의 현황 등을 살펴본 후 관련 학자와 담당 공무원, 관광 및 환경단체, 자연생태해설사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목표, 보호 관리 방안,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 홍보방안, 인증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방안, 지역사회 연계방안, 홍보방안, 인증 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으로 나눠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은 보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활용할 대상이 바로 잘 보전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그 등재기준에 부합한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그 방법으로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생태관광수칙의 제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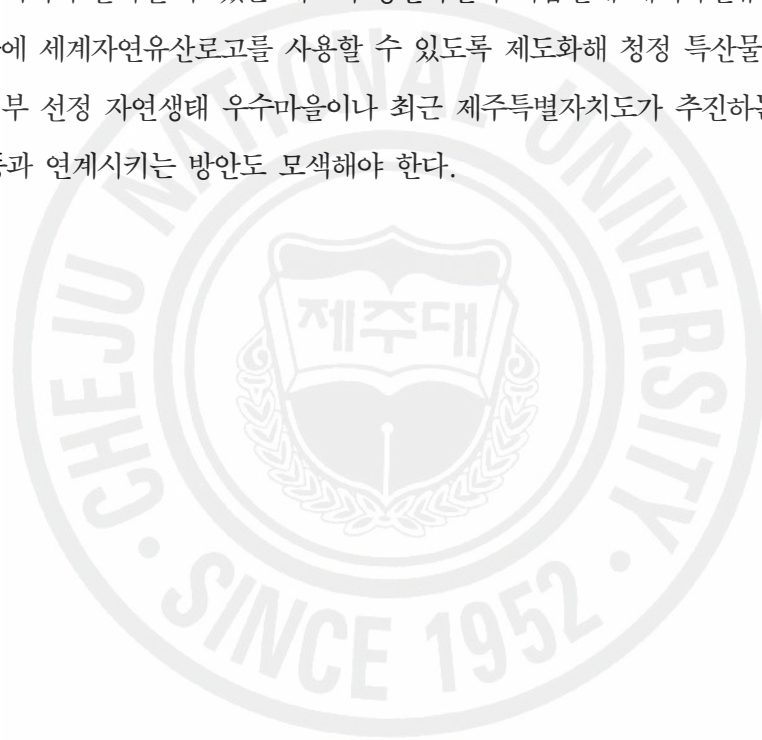
둘째, 세계자연유산과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시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에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사실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평가를 담당했던 IUCN의 평가보고서에도 이 둘을 연계시키라는 권고가 담겨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절대적으로 빈약한 안내도서 및 관광기념품 등의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또 탐방안내소의 경우도 전시 공간 위주의 운영보다는 체험과 정보제공의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넷째, 보다 적극적인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해 인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인증 자연생태해설사도 양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행정의 통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조직, 즉 가칭 ‘제주생태관광협의회’ 또는 ‘제주세계자연유산재단’의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한데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역민들이 생산한 상품에 세계자연유산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청정 특산물 생산, 판매하게 한다거나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미희(2002. 4월). 생태관광 인증제도. 2002년 세계 생태관광의 해 기념포럼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 전략 모색 발표논문집. pp.158-177
- 강미희(2007). 「생태관광인증제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 강순석(2007. 7월). 세계자연유산과 제주도 제주도민의 역할.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pp.61-67
- 강시영(2007). 제주의 새 브랜드, 세계자연유산. 「제주발전포럼」. 제22호. pp.13-24 제주발전연구원
- 강신겸(2005). 제주관광, 새싹이 돋는다. [제주생태문화여행] 국회문화정책포럼자료집. pp.9-15
- 강정효(2003). 「한라산」 서울: 돌베개
- 강정효, 오희삼, 고정군(2003). 「한라산의 등반 개발사」 한라산총서6. 제주도
- 고승익(2002).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도입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15. pp.111-138
- 국토연구원(2000). [한라산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보고회자료]
- 권명희(2000). 생태관광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훈(2007).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되던 날. 「제주도」. 통권 111호. pp.50-58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 신문」. 서울: 일신사. pp.366~368.
- 김사현(2001). 「관광경제학」, 서울: 백산출판사
- 김상우(1999). 한라산국립공원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1995)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도시문제 320호」 pp.102-106
- 김성일(2002. 4월). 생태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세계적 동향. 2002년 세계생태관광의 해 기념포럼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전략 모색 발표논문집. p.3
- 김성진(2002. 4월)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02년 세계 생태관광의 해 기념포럼 한국의 생태 관광 발전 전략 모색 발표논문집. pp.60-68
- 김영준,최승목(2004).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완택(2007). 세계자연유산, 이렇게 등재됐다. 「제주도」. 통권 111호. pp.59-67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 김정연(1995). 생태관광의 국립공원에서의 도입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진선(1998). 해외 생태관광 동향과 사례. 「환경과 조경」, 제125호 pp.144-147

- 김찬수(2007. 7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 및 전망.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pp.7-13
- 김창집(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제주문화. 「삶과문화」. vol. 27. pp.10-15 제주문화예술재단
- 김태일(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 「삶과문화」. vol. 27. pp.16-22 제주 문화예술재단
- 김형길(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 뉴스스. 2005년7월3일자 기사
- 문화재청(2005).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 박석희(1997).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박종구(1994). 생태관광지의 계획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p.13-14
- 서인원,최정수(2002). [대구 경북의 생태관광자원 개발방향]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서재철(2007). 제주도여, 굴러온 북 차지 말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탐방 대책을. 「한겨레21」. 통권667호. pp.44-46 한겨레신문사
- 성현지(1999).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 송재호(2002). 「제주관광의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 신귀곤(1994). 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eco-tourism화의 실제. 제15회 자연 공원 세미나 논문. 국립공원협회
- 신동일,오상훈,정승훈(2001). [제주형 생태관광개발의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신동일(2002). [제주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제주발전연구원
- Stephen Wearing & John Neil. 생태관광, Impacts Potentials and Possibilities(이후석 역). 서울: 백산출판사
- 심숙경,정희성,강문규,고유기,최태영,양병이(2004).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와 과제 세미나자료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도,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 심숙경(2006).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pp.49-57
- 야은숙(1993).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p.39
- 우경식 외(2003. 11월).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 문화재청. 제주
- 유엔환경계획(UNEP)(2004. 3). [제8차 특별총회 및 지구환경장관 포럼]
- 이광희,변재진(1992). 환경보전과 생태관광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교통정보」 1992년4월호

- 이근희(200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범문사
- 이미혜.정석중(2002). 「관광개발론」. 서울: 대왕사
- 이영웅(2007). 제주 세계자연유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함께 사는 길」. 통권170호. pp.56-57  
환경운동연합
- 이장춘(1998). 「최신 관광자원학」. 서울: 대왕사. p.269
- 이종규.박종구.조용현(2004).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1
- 이종수(1999). 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을 위한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06).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자립형 생태관광 활성화연구],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 이화진(2001). 국립공원의 생태관광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은 외(2005). 「유네스코지정 한국의 세계유산」. 제주국립제주박물관
- 임주환(1993). 한국의 보전적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정경일(1996).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도순(200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의의와 관리 및 활용. 「제주도」. 통권 111호  
. pp.68-76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 제주도(1985).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 p.362
- 제주도(2000).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본보고서]
- 제주도(2003).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 제주도(2005).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현장방문 안내서]
- 제주도청 PATA총회준비기획단. 2004년 4월 20일 보도자료
- 제주도청 ASTA총회준비기획단. 2007년 3월 27일 보도자료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11일자 보도자료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12일자 보도자료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20일자 보도자료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3월28일자 보도자료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08년4월14일자 보도자료
- 제주의 소리. 2007년 4월 23일 기사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2006).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
- 제주특별자치도(2008). 유네스코제주세계자연유산 가이드북
- 제주참여환경연대(2001). [국립공원한라산 자연생태탐방코스 및 프로그램개발 보고서]

- 제주참여환경연대(2007).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찾아서1」
- 제주참여환경연대(2008).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찾아서2」
- 제주환경교육센터(2008).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고서]
- 최돈원(2007).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통권 111호.  
pp.77-84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 최미애(1998).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복(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연구」 36권. pp.98-110
- 최용은(1997)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실천방안.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pp.5-6
- 최재우(2001).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태광(2001). 「생태관광론」. 서울: 백산출판사
- KBS제주방송총국, 미래리서치(2008). [제주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서] pp.41-44
- 크레그 린드버그, 도날드 호킨스. 생태관광, Ecotourism(김성일 역). 서울: 일신사
- 한국관광공사(1992). 녹색관광시대를 연다. 「관광정보」 1992, 11-12. p.84
- 한국관광연구원. 200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2004).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이해와 과제 세미나자료집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200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관리계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2008).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 한라일보(2007).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한라일보
- 환경부(2002). [생태관광 지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http://cheju.kfem.or.kr/>
- <http://www.encyber.com>
- [www.me.go.kr](http://www.me.go.kr)
- <http://jejueco.com>
- <http://jejuwnh.jeju.go.kr/index.php>
- <http://www.ecotravel.co.kr>
- <http://www.jejuecotour.com>
- <http://www.jeungo.net>
- <http://www.jeonnam.go.kr>



<http://www.unep.or.kr>

<http://www.unesco.or.kr/whc/>

<http://www.tourlab.com>

<http://www.welcometojapan.or.kr>

<http://www.world-touris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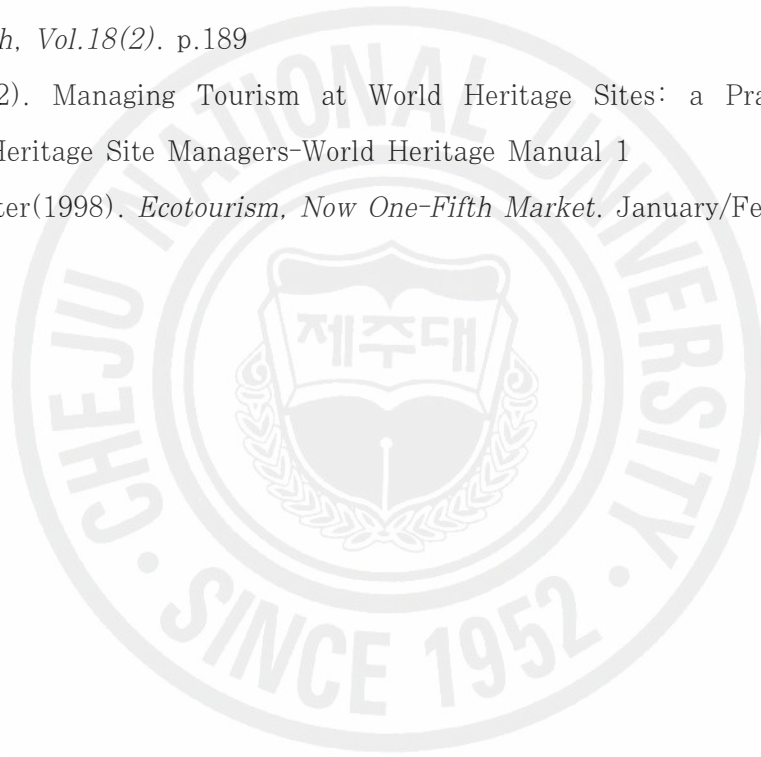
A. Jones(1987). Gree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8*, p.355

C.Eenise Ingram and P.B. Durst(1998). Nature-oriented Tourism Prpmotion by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Vol.9(1)*. p.39.

Susan E. Place(1991). Nature Tourism and Development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8(2)*. p.189

UNESCO(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World Heritage Site Managers-World Heritage Manual 1

WTO Newsletter(1998). *Ecotourism, Now One-Fifth Market*. January/February.



<Abstract>

# A Study on Practical Method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for Eco-tourism

- Focusing on the experts' opinions about Mt. Halla -

Jung-Hyo Ka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The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in Jeju are the best natural phenomena and have natural-aesthetic importances. Also, it has geological, geomorphological, and physical-geographical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the earth. Accordingly, it is recognized as the World Natural Heritage. Because the nature of Jeju is recognized as world cultural properties, we must prepare the proper management programs.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hat we arrange the synthetic approaches between a tourism and environment. As its solution, we need to introduce the Eco-tourism.

This study is progressed to search the practical method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especially Mt. Halla for Eco-tourism. First of all, I examined the concept of World Natural Heritage and Eco-tourism, the instance of World Natural Heritage into the Eco-tourism, the World Natural Heritage and Jeju World Natural Heritag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Mt. Halla. And then, I also researched the object of management for Jeju World Natural Heritage, the method for preservation, the program for Eco-tourism products, the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plan of authentication programs through the survey to the experts such as a related scholar, public officials in charge, a group for tour and environment, and expounder for the nature

and ecology. On the basis of the survey, I presented various plans - the practical method in company with a preservation,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Eco-tourism, the connection with community, the publicity campaign, and the authentication programs. In brief, it is as follows.

Firstly, the practical use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is possible when it is preserved. In other words, its value is in the originality. In this view, first of all, the device for its preservation must be arranged. Also, as the method, the monitoring check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rules for the Eco-tourism have to be established.

Secondly, we have to examine thoroughly the problem for preservation connecting the Jeju World Natural Heritage and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In the course of registration, the fact that Jeju island i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became the merit. As well, in the report of IUCN take charge of valuation, there is an advice for this connection.

Thirdly, the effort to develop guidebooks and a tourism souvenir is needed. In the case of information bureau, it must offer the opportunity of experienc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display-centered.

Fourthly, the authentication program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must be introduced for more active practical use and the certificated expounders must be trained. For that, the organization which can coordinate the community, civic groups, academic world, and administration. Namely, the formation of tentatively named "The Society of Jeju Eco-tourism" or "the Foundation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must be examined.

Fifthly, the device which can lea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 local resident have to be prepared in order that Eco-tourism can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For that, the institutional device which can offer the economic benefit to community is needed. There are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system that the local resident can use the logo of World Natural Heritage for their products have to be designed. Also, we have to find the method for connection between the Jeju World Natural Heritage and the "The Excellent Natural Ecology Village"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r the project of "Special Self-governing Village" promo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강정효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이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처리되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자산인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5

연 락 처 : 011-9365-1950

이 메 일 : [hallasan1950@naver.com](mailto:hallasan1950@naver.com)

연 구 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강정효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관리목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1.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적정한 환경수준의 유지( )      ②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욕구충족 제공( )  
③지역사회의 사회적 질 향상( )      ④개발에 있어서 지역특성의 보전( )  
⑤관광의 지속적 수용능력 확보( )      ⑥기타( )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보호관리 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1.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방안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설문  
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③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  
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필요하다( )      ②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보통( )  
④약간 필요치 않다( )      ⑤필요치 않다( )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	④ 약간 필요치 않다	⑤ 필요치 않다
2.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수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지역의 NGO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탐방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운영할 경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방문객 사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상품 개발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1. 생태관광개발이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파괴방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      ②효과가 클 것이다( )  
 ③그저 그럴 것이다( )      ④효과가 약간 있을 것이다( )  
 ⑤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

2.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한라산천연보호구역( )    ②만장굴( )    ③당처물동굴( )    ④용천동굴( )  
 ⑤김녕굴( )    ⑥벵뒤굴( )    ⑦성산일출봉 응회구( )

3.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①한라산( )    ②오름( )    ③하천 및 해안선( )    ④동식물( )  
 ⑤동굴( )    ⑥곶자왈( )    ⑦제주신화( )    ⑧기타( )

4.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으로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지역해설가( ) ②청정 지역특산물 판매점 운영( ) ③민박 등 농촌관광과 연계( )  
④모니터링 요원 양성( )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 요 성				
	① 필 요 하다	②어느 정도 필 요하다	③보통	④ 약 간 필 요 치 않다	⑤ 필 요 치 않 다
5.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여기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합동의 생태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체험할 수 있는 제주생태관광공원(-예를 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조성중인 역사신화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 인근에 야영장 기능을 갖춘 수련원시설(예를 들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의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의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추가적인 탐방로(등산코스)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주민의 참여, 연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제주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 상품 개발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홍보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 ②그렇다( ) ③보통( ) ④그렇지 않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2.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순서대로 세 개만 골라 주십시오. ( , , )

- ①홍보 인쇄물 제작( ) ②유산지역 지도제작( ) ③타 지역 홍보 부스 설치( )  
④사이버 체험관 설치( ) ⑤홍보 사절단 구성( ) ⑥기타( )

3.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도서, 기념품 등의 개발 주체로 누가 적절하다고 여기십니까.

- ①행정( )      ②관광협회( )      ③민간인( )      ④전문연구기관( )  
 ⑤행정에서 민간에 위탁 또는 지원( )      ⑥기타( )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	④ 약간 필요치 않다	⑤ 필요치 않다
4. 3D 영상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제주생태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제주세계자연유산에서의 자연생태해설사의 도움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보통	④ 약간 필요치 않다	⑤ 필요치 않다
1.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인증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제주세계자연유산에 친환경 관광 인증 자격증이 주어진 전문 자연생태해설사의 양성, 상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친환경 관광 인증 자격증이 주어진 전문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경우 그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십니까.

- ①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 )      ②제주도관광협회( )      ③학계에 위탁( )  
 ④NGO 위탁( )      ⑤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⑥기타( )

4. 자연생태해설사의 운영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행정( )      ②민간 기업이나 영리단체( )      ③시민단체( )  
 ④학회나 협회( )      ⑤위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 )      ⑥기타( )

이 외에 제주세계자연유산에서의 생태관광 자원화방안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